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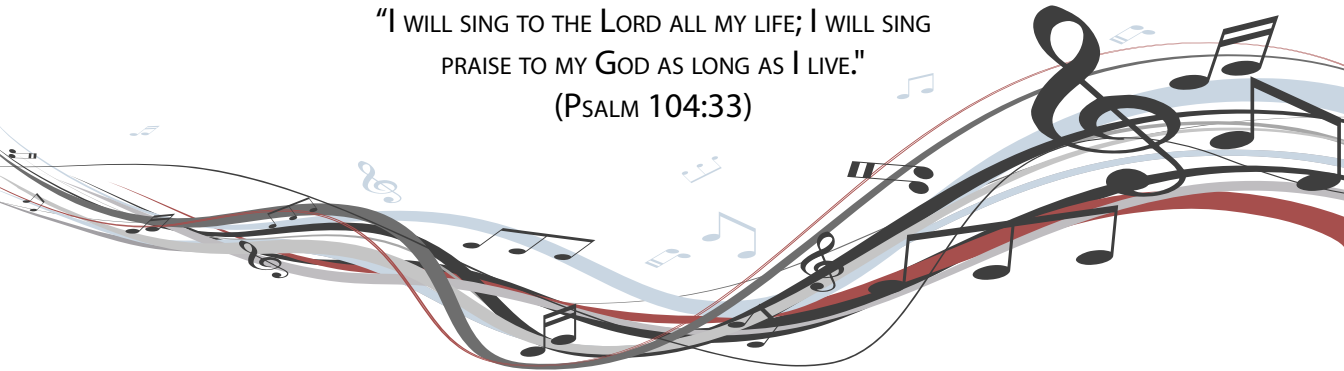
임마누엘 [찬양호] Vol. 12, No.2, Aug. 28, 2016

Emmanuel

말씀의 창

“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 (시편 104:33)

“ I WILL SING TO THE LORD ALL MY LIFE;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AS LONG AS I LIVE.”
(PSALM 104:33)



Contents

Vol.12, No.2, Aug.28, 2016

I. 행전시리즈

02	말씀의 창 - 시편 104:33
04	담임 목사 칼럼 - 찬양의 기쁨을 누리시다
06	믿음의 선진들 -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선교 현장 보고서
08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네편 홍추민 선교사
10	세계 속의 교회 탐방기 - 대만 신죽 한인 장로 교회
12	공예배 현장 - 유스부 예배
14	청교도의 후예들 - 장로교 창시자 존 낙스
16	유스부에 바란다 - 고등부 김승균 목사
18	어린이 전도 폭발 - 김수예 전도사

II. 실만한 물가

20	전도 팀 -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복음
22	임마누엘 레시피 - 함박스테이크
24	인터넷과 아이들 - 아이들과 스마트폰
26	물댄 동산 - 능력에 관한 오해
28	성경 속의 식물 - 로렘나무
30	시가 있는 풍경 - 아름다운 구주 (Beautiful Savior)
31	크리스천 명언 - 허드슨 테일러
32	선교 영어 한마디 - Talking about Jesus
35	임마누엘 카툰 - 모두 버리고 내려놓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36	음식 상식 - 우리가 모르는 오이의 건강학
38	초대의 글 - 절반의 답
40	그림 이야기 - 여행길에 만난 예수님_생명의 빛
42	퍼즐, 다함께 풀어요

III. 임마누엘 사람들

44	나의 사랑하는 책 - 이건 마치... 내가 이스라엘인 듯... 천사도 흠모하겠네
46	부활의 증인 - 한 걸음 한 걸음
48	유스부 세례 간증
50	유스 미션 트립 간증 - By God's Grace Alone
52	성경 일독 간증 - 말씀이 이끄는 삶
54	나의 노래 - 주 너를 지키리
56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가난과 고난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58	예녹과의 만남 - 찬송가 600여 곡을 알토 확음으로...
60	임마누엘 한국 학교 글 잔치 - 김치, 바닷가
62	행복한 사람들 - 주 안에서 하나임이 행복합니다 팀, 부서 소개
64	팀 소개: 테니스팀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66	부서 소개: 중고등부 - 파워 제너레이션
68	건강과 식생활 - 불로초와 Cruciferous vegetables 이야기
70	임마누엘 인터뷰 - 고석진 성경 일독방을 찾아서
74	크리스천 영화방 - 인터스텔라 (Interstellar)

찬양의 기쁨을 누리시다

시편을 보면, 찬양은 인위적인 행동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목이 몹시 마르다가 시원한 보리차 한잔을 죽 들이킨 후, 나도 모르게 “어이 시원해” 하고 외치는 것처럼, 서쪽 하늘을 온통 황홀하게 물들인 저녁노을을 낫 놓고 바라보며, 혹은 서늘하도록 장엄한 산악의 광경에 도취되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사를 외치는 것처럼, 찬양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젖어들 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자연스런 ‘반응’입니다.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없이 펼쳐진 우주의 광대함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놀라운 신비를 보며, 모든 만물 위에 홀로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심이 내 영혼에 소름 끼쳐지도록 느껴질 때,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찬송이 우러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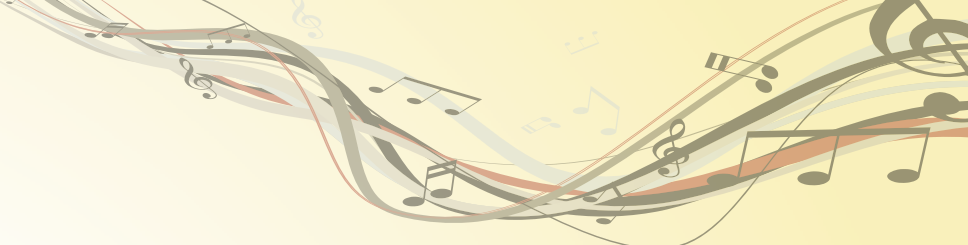
찬송 79장 영어 가사 1절을 보면,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R THROUGH-
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찬양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나의 힘ियो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세대는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투정하는 아기를 재우며 찬송 370장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찬송을 드리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여, 아기도 어느덧 잠들고 근심 걱정도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습니다.

찬양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고,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경이로운 힘이 있습니다. 상황이 수습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울 때, 근심 걱정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올 때, 힘들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다잡아서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역물한 누명을 쓰고 옷이 벗겨진 채 태장을 심하게 맞고 차꼬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미를 드린 것처럼(행16:22-26),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고 입이 멀어지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입을 벌려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그리하면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만 알 수 있는 신비로운 평화와 기쁨이 밀려오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시22:3, ENTHRONED ON THE PRAISE OF ISRAEL)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 위에 보좌를 세우시고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두려움과 어둠을 물리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처녀 운항에 나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할 때, 어린이와 여성 705명을 구명보트에 태우고, 1,635명의 승객이 갑판에 남아서 침몰해가는 배와 함께 죽어가며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선상 악대 지휘자 윌러스 하틀리가 악사들과 연주한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를 함께 불렀습니다. 거대한 배는 검은 물속으로 점점 침몰해가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죽음이 성큼성큼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들을 붙잡아준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부르며 그들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거센 풍랑 중에 계시니까? 찬양을 시작하세요. 폭풍우 속에서 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욥38:1)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삶이 침몰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입을 벌려 찬송을 드리십시오. 찬양을 집중하여 드릴 때 그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찬양 위에 좌정하셔서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신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지난 세대의 어머니들처럼 여러분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우주의 통치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히13:15) 찬양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글 손원배 목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1902-1950)

한 - 주님께 부름 받기까지

국 교회사에서 뜨거운 사랑의 지도자로 기억되는 손양원 목사는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군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칠원 보통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동방요배'(東方遙拜: 일본 왕이 사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식)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제는 1912년 7월, 명치 천황이 죽자 각지에 요배소(遙拜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요배를 강요했고, 1915년에는 개정 사립 학교령을 공포하여 종교 교육을 금지, 관공립 학교에서는 철저한 식민지 교육을 했다. 매일 아침 동경을 향하여 동방요배를 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하고, 모든 공휴일마다 신도의식을 개최하고 천황 사진에 절을 하도록 강압했다. 그러나, 손 목사는 이것은 십계명 중 제 일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요배를 거부함으로써 퇴학을 당했다가 맹호는 선교사(매크레이 선교사, 호주)의 도움으로 복학하였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며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중동 학교에 진학했으나, 극심한 생활고로 잠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1921년, 일본에 건너가 동경의 스가모(巢鴨) 중학교 야간부에 다시 입학하여 1923년 졸업했으며, 귀국 후, 1924년 1월에 정양순 씨와 결혼하였다. 배움의 의욕과 재능이 많았던 그는 1926년 3월, 경남 성경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며 부산 감만동 한센 병자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여 1932년까지 사역하였다.

- 신학교에서

1935년 4월, 손 목사는 33세에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여 평양 대동강변의 능라도 교회 전도사로 시무하면서 공부했다. 신학교 2학년 때, 애양원의 사경회 강사로 초청되었는데, 손 목사는 외부인들이 방문할 때 입는 가운과 장갑 끼는 것을 거부했다. 한센 병자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그 병을 무시워해서야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때 애양원 성도들은 손 목사의 설교뿐 아니라 이러한 그의 태도에 큰 은혜와 감동을 하게 되었고, 후에 그를 애양원 교회로 청빙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또한, 이때는 한국 교회가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참배 문제로 온통 뒤흔들리던 시기였는데, 그는 신사참배에 강력히 반대했다. 평양 신학교 교장 나부열(STACY, L ROBERTS) 목사도 강경한 태도로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결국 1938년 3월에 손 목사가 졸업한 제33회를 마지막으로 평양 신학교는 폐쇄된다.

- 신사참배 반대와 옥고

1939년 7월, 손 목사는 여수 애양원 교회로 부임한다. 신학교 시절부터 신사참배를 반대해 왔던 손 목사는 부임해서도 설교 때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회개를 촉구했다. 게다가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은 망한다고 주장했기에 일본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결국, 1940년 9월 25일, 신사참배 거부와 백성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핍박을 받으며 해방될 때까지 6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도 기도, 찬송,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하고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며 간수들까지도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했다.

- 한센 병자들의 영원한 벗

손 목사의 하루는 한센 병자들과 함께하는 생활 이외에는 없었다. 당시 중환자실에 있던 몇 명의 환자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이들의 상처를 한번 치료하려면 간호사 둘이 매달려도 두세 시간이 소요되었다. 온 방 안에 진물과 핏자국, 땀들이 엉겨 붙어 도저히 그냥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상처를 보려면 방바닥에 신문지 세 장 정도를 깔고 들어가야 했다. 손 목사는 이러한 방에 서슴지 않고 들어가서 맨손으로 방바닥을 치우고 환자의 목을 꺼안고 이마를 대고 기도를 해주었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비록 환자들의 육체는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웃을 입혀서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이 손 목사에게 힘이 되었다.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한센 병자들에게 손 목사는 사랑과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의사 못지않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 원수를 사랑한 목자

1948년 10월 19일, 당시 제주 폭동 사태 진압을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며 순천까지 점령하여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는 '여순사건'이 발생했다. 반란군은 인민 위원회를 만들어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죽이는 민족 대학살의 광란극을 벌였다. 이때, 신앙과 민족정신으로 무장된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하다가 잔인한 폭도들에 의해 한꺼번에 무자비하게 총살되었다.

사랑하는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한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손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온 것,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이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 예수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하고 천국에 가게 된 것, 이러한 순교 때문에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이 같은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과분한 복이며 부모님과 교회 식구들의 기도 열매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뿐만 아니라 손 목사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 중 하나인 '안재선'이라는 학생의 석방을 간청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였고 양아들로 삼아 전도사로 키워내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여 주었다.

- 순교자로서의 최후의 영광

1950년 6·25동란이 발발했을 때, 손 목사는 피난하지 않고 교회에 남았다. 우선 몸부터 피하고 보자는 제직들의 간절한 청 때문에 함께 송별 예배를 드리고 배에 올랐으나, 마지막 찬송을 부른 후 갑자기 배에서 가방을 들고 뛰어내렸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죽는 것이 영광이요, 목자 없는 일천 명의 교인들을 두고 간다면 그들을 자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피신을 완강히 거부하고 제직들만 보냈다. 결국, 손 목사는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1950년 9월 28일 저녁 11시 여수 근교 미평에서 48세의 나이로 총살당하여 순교했다.

그의 일대기를 돌아볼 때, 손양원 목사는 실로 성경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했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살아간 믿음의 선진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양들, 즉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한센 병자들을 끝까지 섬긴 신실한 목자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으로 풀어낸 사랑의 화신이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기도한 아름다운 순교자요, 한국 교회 일백 년 교회사에서 세계 교회에 내놓을 수 있는 큰 자랑거리이다.

정리 한연선

출처: [HTTP://BLOG.DAUM.NET/KOY524/283](http://BLOG.DAUM.NET/KOY524/283)

사진: [HTTP://BLOG.DAUM.NET/PERFECTLOVE123/8469578](http://BLOG.DAUM.NET/PERFECTLOVE123/8469578)

네팔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울

하는 단기 팀에 많은 교우님이 참여를 한다니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네요! 늘 멀리서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그 땅에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도하심에 담대하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9

- 선교지 현황

이번 단기 팀은, 2년 전 선교위원회에서 방문하였던 '지'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의료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머겔족'이 대부분이고 한 산골짜기마다 약 3,000명이 함께 모여 삽니다. 이들은 주로 계단식 산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특별히 잡신을 많이 믿으며, 귀신들린 자들이 많은 마을입니다. 또한, 남자들은 집에서 담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아내를 구타하는 좀 거친 종족이지요. 종족의 성격상,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받아들이면 변치 않는 종족이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만', '채트리'의 종족은 처음엔 참으로 친절하여 무엇이 잘 되어가는 듯하나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에는 중화 계급인 '머겔족'보다는 몇 배 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단기 팀은 '머겔족'으로 향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려 합니다. 팀에게 조금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긴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라 하심에 늘 순종하는 우리의 지체요, 팀이기에 아무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한곳 역시 새롭게 의료캠프를 시작하는 곳으로 포카라 근교의 강가에서 돌을 깨며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사역을 생각하게 된 것은, 1년 전 지진 이후에 부모를 잃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 중에 이곳 친척 집을 찾은 아이들이 2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후원하며 양육하고 있는 동네로서 그 친척들을 위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함께하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려 합니다. 여러 종족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이 그랬듯이 생계가 힘든데도 웬 알콜 중독자가 그

리 많은지요...!! 힘들음을 알콜에 의지하려는 아픔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21명의 아이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이들 친척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단기 팀을 통하여 이들의 마음 발이 갈아엎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팀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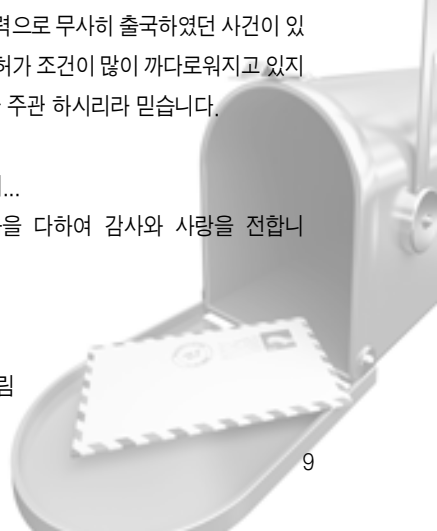
1. 단기 팀을 통하여 '머겔족'의 거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2. 단기 팀의 섬김을 통하여 '강가에 사는'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3. 우기가 지난 때이지만 '지'로 향하는 길이 뚫려서 열릴 수 있도록
4. 가장 큰 명절이 '더 사인'이 10/8-10/15일까지입니다. 축제 기간을 통하여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5. 의료캠프 허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두 달 전에 한국에서 온 의료팀의 의료캠프가 카트만두 근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지 선교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캠프를 진행하였고, 둘째는 의사들이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셋째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가지고 오면서 그 날짜를 모두 지웠습니다. 현장에서 현지 동역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한국의 팀은 대사관의 노력으로 무사히 출국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허가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또한 주관 하시리라 믿습니다.

동역자인 지체님들께...

보고픈 마음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홍추민 보영 희주 울림



신죽(新竹) 한인 장로교회를 다녀와서

살

형제자매님들은 혹시 출장 갔을 때, 그곳에서 다니는 교회가 있으신가요? 제가 출장을 가는 곳은 대만 신죽(新竹)이라는 곳으로 이곳은 대만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평소 1년에 한두 번 출장을 가서 출석하는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만도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인도교회와 같이, 신죽(新竹)에 사는 형제자매님들이 대만의 장로교회를 빌려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 신죽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선교사이신 김태희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작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를 이루어 오신 시간이 올해로 12년째랍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이 5~6년 전부터이니, 저도 꽤 되었네요. 사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외에는 다녀 본 적이 없어, 작은 교회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교회의 면을 보고 배웁니다.

성인 약 20여 명이 출석하는 대만의 한인 교회의 특성상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은 모두 일로 대만에 정착하시는 분이거나, 저처럼 잠시 들리시는 분들로 성도가 늘어서 교회가 커가는 것을 소망하기엔 쉽지 않아, 모두들 내려 놓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 섬김이 넘칩니다. 제가 출장 중, 주일에 방문하면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데, 참 이상하지요? 원래 처음 보면 서먹서먹한데, 주 안에서 한가족이어서 그런지 그런 서먹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챙겨 주시니 그런 마음들도 다 밀려 났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듯이, 이 작은 교회에서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섬기시는 그 모습들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고 배웁니다. 늘 기쁘게 반겨 주시고, 품어 주신 대만 신즉 한인 장로교회에 감사드리고, 항상 주님이 사랑을 이 작은 교회에 넘치게 부어 주시길, 그 사랑이 주위로 이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형제자매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다 알아보지 못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과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여 가는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제안해 봅니다. 저는 모르지만, 임마누엘 교회도 작은 때가 있었고, 작은 이의 사랑과 섬김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지금의 장성한 교회로 자라도록 한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형제자매님,

믿음의 선배들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리에서 나는 미래에 믿음의 교회될 어린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사랑과 섬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

이 우리 다음의 믿음의 세대에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초심을 잃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작았을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글 이종상





질풍노도의 바다를 가르는 유스부 예배

유스부 예배는 주일 아침 9시 30분, 중고등부 예배실 바로 옆 방에서 담당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 예배실 입구에서 아침 인사로 반갑게 맞이하는 IN-REACH 팀을 지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아이들은 아침 10시 찬양팀의 인도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간의 질풍과 노도의 삶을 살아온 아이들이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에는 더없이 중요한 시간이지요.

눈물의 기도로 준비해 온 찬양 리더가 때로는 성경 구절로, 때로는 모인 회중을 향한 초대와 함께 첫 찬양의 목소리를 울립니다. 'I WANT TO KNOW YOU LORD!'를 외치며 절망과 탄식으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주님의 복음을 통해 열리게 된 것을 노래하고 틀에 박힌 종교 행위는 내려놓고 가식 없고 이해하기 쉬운 복음을 통해 친한 친구처럼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찬양을 통해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를 함께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묵묵히 기다리던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

주신 주님과 만남을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세요’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로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굿모닝!”의 인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어때요,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는 형제자매 친구들이 예배지요?” 하시는 전도사님의 웃음 섞인 메시지에 함박 얼굴을 밝혀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학생 중 돌아가며 당번으로 맞게 되는 광고 시간을 통해 이번 주와 다가올 주간의 행사 정보를 나누지요. 이번 주에는 성경 일독의 고삐를 늦추지 말 것과 분실물 함 다시 한 번 확인하기 그리고 유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도우미 참여 과정, 샌프란시스코 미션 여행, 다시 시작하는 토요일 REST 모임에 대해 소식을 나누어 주었네요. 광고를 전해 주는 당번 학생들의 재치가 다시 한번 모인 이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광고 후 시간은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몇 주전에 세례와 입교한 학생들이 한 주에 한 명씩 돌아가며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경제적 배경, 부모님의 모습,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생활, 학업 성적, 사



는 지역 등은 다르지만, 질풍노도 청소년기에 겪는 고민과 아픔과 절망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간증 후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준 친구를 위해 전도사님과 모여 있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중고등부의 공동 순서를 마무리합니다.

10시 45분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을 위한 교실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등부와 고등부 순서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중등부가 권혜린 전도사님의 말씀 선포를 듣는 동안 고등부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지은 시편 3편을 통해 '주님은 나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비록 정황과 내막과 정도는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과 불안을 가득 품고 살아간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는 쉽게 파는 웃음, 친구들, 말재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문명의 도구들에 의지하며 억지로 혼자 이겨 내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 이후 중등부 예배는 전도사님의 기도와 다 같이하는 찬양으로 11시 30분쯤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중등부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을

로 향하고 고등부는 예배실로 돌아와 김승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값싼 감정을 넘어선 경배를 위해 우리 아이들은 매 주일 설교와 토요 학습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특히 어린 중등부 학생들에게는 주님과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꾸어 나가기를 강조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 중 예배의 리더들이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섞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모습의 단면이 같이 예배하는 중 고등 학생들 사이에 퍼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유스부의 올해 표어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옴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를 바탕으로 한 'PURSUE AND KNOW God'입니다. 주님께서는 올 상반기에는 누가복음, 시편, 창세기 등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감정과 관계의 질풍노도의 한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소중한 중고등부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각각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앎을 통해 폭풍의 바다를 믿음으로 용기 있게 가로지르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글을 올려 드립니다.

글 한혁 / 사진 안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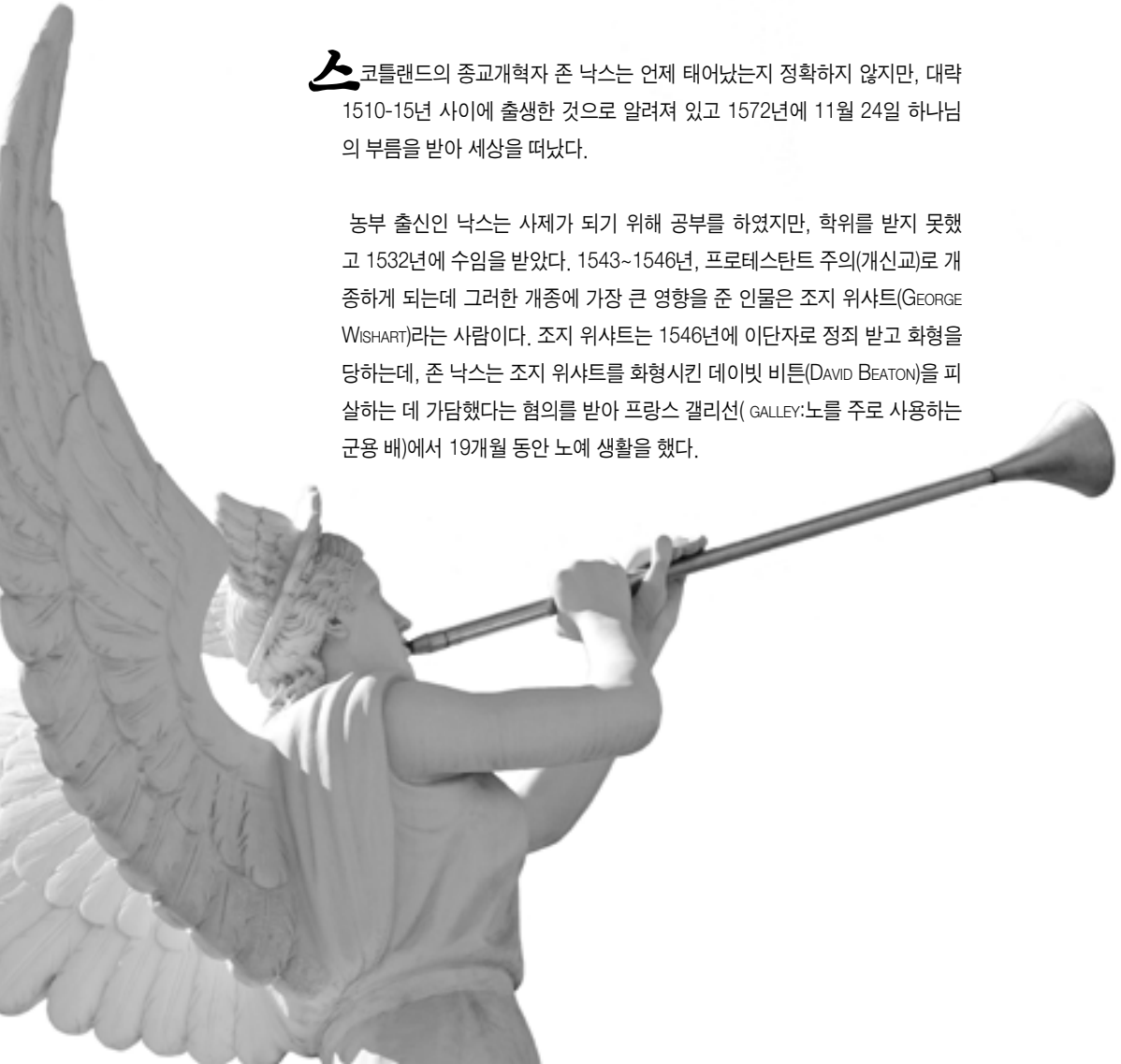


장로교의 창시자 존 낙스

(JOHN KNOX, 약1514~1572)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1510-15년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572년에 11월 24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

농부 출신인 낙스는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였지만, 학위를 받지 못했고 1532년에 수임을 받았다. 1543~1546년, 프로테스탄트 주의(개신교)로 개종하게 되는데 그러한 개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조지 위샤트(GEORGE WISHART)라는 사람이다. 조지 위샤트는 1546년에 이단자로 정죄 받고 화형을 당하는데, 존 낙스는 조지 위샤트를 화형시킨 데이빗 비튼(DAVID BEATON)을 피살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 프랑스 갤리선(GALLEY:노를 주로 사용하는 군용 배)에서 19개월 동안 노에 생활을 했다.





1549년에 석방된 낙스는 영국으로 건너가 설교자가 되었고 1551년에 궁중 목사가 되기도 했다. 1553년에 피의 여왕 메리(BLOODY MARY)가 등극해서 철저하게 가톨릭을 옹호할 뿐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들을 색출하고 처형시키는 등 박해가 심해지자 다음 해 영국을 떠나 방황하다가 제네바에 이르러 그곳에서 칼빈, 불링거, 베자 등의 개혁가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

칼빈주의에 심취한 그는 1555년, 스코틀랜드를 잠시 방문한 후 메리 여왕(MARY STUART)에 반대하는 프로테스탄트 단체를 이끌었다. 다음 해 그가 스코틀랜드를 떠나자 로마 가톨릭은 그의 인형을 만

들어 그를 화형시킬 만큼 존 낙스를 미워하고 경계했다. 제네바에 돌아와서 1559년까지 머물면서 영국 피란민 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는데, 낙스가 제네바에서 지냈던 이 시기에 그의 신학 사상들이 가장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었다. 1559년 5월 2일,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낙스는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로서 로마 가톨릭 주의에 반대했다.

프랑스로 시집갔던 MARY STUART가 1561년에 다시 돌아와서 로마 가톨릭 주의를 퍼뜨리려고 하자 존 낙스는 가톨릭을 반대하는 선봉에 나섰다. 이때 얻은 낙스의 별명이 '하나님의 나팔수'(THE TRUMPET OF GOD)였다.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수만 명의 적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왕의 특사인 토머스 란돌프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시간 안에 귓전에 계속해서 때리는 5백 개의 나팔보다도 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생겨난 별명이 "하나님의 나팔"이었던 것이다.

존 낙스는 약 60세쯤 되었던 1572년 11월에 그 생을 마감한다. 그는 아내의 무릎을 베고 "내가 처음으로 닦을 내린 곳을 잊어주시오" 라고 부탁했고,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지막 잠이 들었다고 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비에는 칼빈, 파렐, 베자와 함께 존 낙스가 새겨져 있다. 그는 종교개혁의 최전선에서 가장 격렬하고 힘겨운 일생을 보냈다. 그가 기초를 세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바로 우리 장로교 신앙의 시작이었다. 장로교인으로서 존 낙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기도하는 찬사없는 기도하지 않는 찬편족보다 강하다" - 존 낙스

출처: [HTTP://KEUMSUNG.ORG](http://KEUMSUNG.ORG)

<http://www.spectator.co.uk/2015/05/john-knox-like-the-blast-of-500-trumpets/>



유스부에 바란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고등부 담당으로 임마누엘 장로 교회에 부임한 김승균 목사입니다. 아직 직접 못 만나 뵈 분들도 있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나마 글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만 마치고 와서 한국말이 좀 서툴긴 하지만 약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한 목사의 말만이 아닌 한 그리스도인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친구로서, 동생으로서, 형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쓰는 글입니다.

유스부에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떻게 자라 왔는지에 대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지금 고등부 목사로서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삼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교회의 장로와 대학교수로 30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시고 청년부와 장년부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지금은 두 번의 신학교 과정을 마치시고 유치부 부장과 권사로 교육과 기도와 큐티사역을 통하여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저와 두 형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유치원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자라왔던 저는 1998년, 아버지가 미국에 교환 교수로 오시면서 온 가족이 함께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우리 가족은 아직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를 그리워하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고, 미국 생활이 편하지도 않았습니 다. IMF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아버지 봉급에 압류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새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지금도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매일 밤 가정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는 간단하게 찬양과 말씀,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가족의 가정예배는 15분 정도 했지만 (때로는 새벽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싫었습니다. 교회를 자주 다니고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가정예배가 지루하고 나오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도 그 시절이, 또 가정예배가 그리웁니다. 왜냐하면, 매일 밤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말씀 읽기,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을 의지



(TRUST)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 가족이 자동으로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이거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볼 때, 이제 저 자신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남편과 아버지가 되면서 그저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 제 부모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매일 부모님과 같이 보낸 15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그저 교회에서만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전체이자 중심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유스부의 사역은 중고등부 사역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ESTMINSTER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RIP PRATT 목사님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ESCONDIDO, PCA)의 YOUTH AND FAMILY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저는 유스부 사역은 중고등부 사역과 동시에 가정 사역을 함께 해야 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YOUTH AND FAMILY! 가정은 아이들의 삶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완벽한 가정이어야만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완벽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닌, 완벽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닌, 또 완벽한 부모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요즘 INTERNET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커가는 아이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성경을 통하여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 것만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는 먼저 집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 아내와 제 아들에게,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에,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바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나 저와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미리 알려 주시고 방 117번 (당회실 맞은 편에 있는 방)으로 오시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글 김승균 목사





수요일도 주님의 것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임마누엘 장로교회 초등부를 섬기게 된 김수에 전도사입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우리 교회 초등부를 PASTOR BARBARA 밑에서 출석하며, 제 인생에 참으로 따뜻한 교회라고 기억해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기억은 안 나지만, BARBARA 전도사님의 따뜻했던 미소와 주님에 대한 열정을 기억하며, 그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어 감사합니다.

전도폭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예복 평원(매주 수요일)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도 쉬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데, 우리 아이들도 복도에서 방황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앉혀야겠다는 생각에 시작된 수요예배입니다. 수요일 밤 아이들이 저만 보면 “피구 공 있어요?” 하는데, ‘저렇게 귀한 3~4시간을 교회에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보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어린이 전도폭발은 화려한 게임과, 신나는 놀이동산, 혹은 데이케어가 아닌, 그저 예수님과 가까이 거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나의 신앙을 남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지 배우며, 어떠한 성경 구절에 속하는지 알고, 손동작으로 은혜, 죄, 하나님, 예수님, 믿음, 그리고 헌신을 배웁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 찬송가를 아이들이 부르며, 너무나도 이쁘게 1분 동안 무릎 꿇고 주 앞에 ‘I CAST ALL MY CARE UPON YOU’를 조용히 부르며 예배를 접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3편, 121편, 등등 암기와 함께하는 배구 시간, 그리고 부모님들의 도네이션인 간식으로 수요예배를 마무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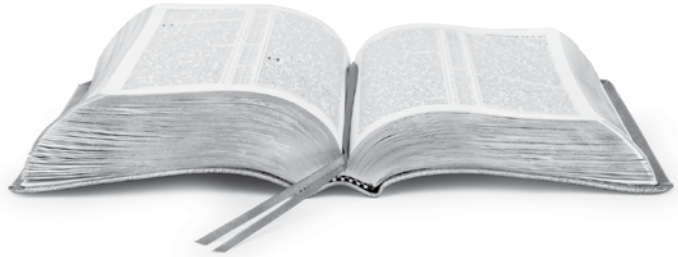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는 예배의 자리이며, 기도하는 집이며, 주님의 성전임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설명했으면 하는 소망은, 교회 안에서만 잠재하는 믿음이 아닌 이 세상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좁은 길로 곳곳이 걸어갈 수 있도록 ARMOR OF GOD 을 준비해주는 마음으로 시작된 어린이 전도 폭발 수요 예배입니다.

초등부 비전은 아이들이 예수님과 같이저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란트 날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장난감을 교회 안에서 구입하여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닌, 남에게 나의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COMPASSION의 아이들에게 반별로 달란트를 모아 닭 한 마리, 소 한 마리, 교육패키지, 축구공, 치아검사 등등으로 자녀들에게 좁은 길의 연습을 시키는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영적인 전쟁터에 매일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의존하고, 주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초등부를 보시고 “저 아이들은 전심으로 내 마음을 쫓는구나!” 라고 하시며 우리 아이들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은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글 김수예 전도사 (초등부 담당)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복음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 복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 속죄 교리가 아니다. 복음이 교리로 그치면 아무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주님이요, 왕이 되신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의 감격으로 살게 마련이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롬 1:2~4)

복음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죄를 이기고 살게 돼야 비로소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 실제로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이며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롬 1:17)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용서해 주셨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복음은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진실로 믿게 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복음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복음 안에 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16)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감격해서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되고, 가서 전해주면 그들이 다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이것이 빛진 마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빛진 자라고 한 것이다. “켈라임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롬 1:14)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 외에 부와 건강, 명예, 친구, 안전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평생 복음을 위한 ‘중’이 되었지만,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사도바울은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부활의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 되시고 나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축복이었다.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5)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유기성 저)- 중에서 발췌





함박 스테이크

“2년 전 아이가 Pre-school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만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엄마들과 어려서 성당에는 나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냉담해 계신 분들이 계셨다.

2014년 10월, 교회에서 시작된 '전도훈련' 모임에 나가 훈련을 받으며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이제는 그분을 빼고는 내 삶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한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전할지... 마음에 부담이 생겼다.”

전도훈련 몇 주치쯤 됐을까? 손원배 목사님께서 복음을 나의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인 그를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에, 그 주 그분들을 집으로 초대해 기도하며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 앞에 우리는 기도를 드렸고, 난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훈련에서 외운 말씀을 그분들 앞에서 선포했다.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가 '어려서 믿었던 믿음의 삶'과 '앞으로 어떻게 믿어야 할지'에 대해 그날의 대화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예수님을 떠났었던 두 자매님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 화요 여성예배, 일대일 양육을 마치고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신다. 정말 짧은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날에 그분들의 마음이 열렸던 걸 나는 안다.

지금도 내 주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 그날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 요리가 이제는 나의 18번이 되어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마음 편히 해 드릴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앞으로도 나는 이 음식을 준비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기도해본다.

● 함박스테이크 만드는 법

Ingredients	같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7:3의 비율이 좋다) 400g, 계란 1, 우유 50g, 빵가루 1컵, 소금, 후추, 양파 반개 (잘게 썰어 볶아놓기)
Sauce (4인 기준)	물 한 컵 200ml, 토마토케첩 4T, 굴 소스 2T, 청주 1T, 버터 1T, 간장 1t - 섞어서 그릇에 준비해 놓기

1. 양파 반개를 잘게 썰어 볶아 놓기.
2. 같은 고기에 볶은 양파와 위의 재료들을 넣고 치대어 손바닥만 한 크기로 두툼하게 만든다. (4개)
3. 중불에서 고기패티를 앞뒤로 살짝 익힌다.
4. 여기에 준비해 섞어놓은 Sauce를 넣고 10~15분간 겉쪽해 질 때까지 조리한다.
5. 곁들이는 야채는 집에 있는 재료로 자유롭게 준비한다.

글 황원경

아이들과 스마트폰



방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을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중학생인 큰딸이 학교에서 아이패드를 주고 그것으로 숙제도 하고 반 친구들과 온라인상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교실에서도 아이패드와 인터넷을 사용해서 학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인터넷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악하다고 해도 아이들을 집에만 있게 할 부모님들은 없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위험하게 고속도로 위를 걸어서 횡단한다거나 어두운 밤길에 위험한 동네를 혼자 걸어 다니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힘드셔도 어린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올 때도 차에 태워서 옵니다. 가까운 거리지만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걸어오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어린 생명을 잘 키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호 이슈에서는 인터넷을 OPENDNS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해한 성인사이트를 인터넷 공유기에서 차단하는 필터에 대해 얘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읽어서 보셨지만 '우리 집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고 아직 셋업을 안 하셨으면 다시 권유를 드립니다.

이번 이슈에는 모든 청소년이 가장 애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인, 가끔은 유아까지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컴퓨터에 중독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 온 거 같은데요. OPENDNS는 집에 있는 인터넷을 유해한 사이트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집에 있는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화회사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어마어마한 데이터 사용으로 전화 요금 폭탄을 겪어보신 분들 잘 아실듯하네요.

PEW RESEARCH CENTER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내 2/3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휴대가 간편한 컴퓨터 수준에 이르러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나 앱에 노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꾸준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자살 이유가 인터넷을 통한 'CYBER BULLYING'이나 모르는 사람들과 무심코 한 채팅 내용이나 동영상 발미로 협박, 성폭행, 경제적 피해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없이 무심코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인터넷을 열어둔 것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중에서 월등히 인기가 많은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APPLE CONFIGURATOR 란 앱을 이용하시면 아이폰을 원하는 대로 셋업하셔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음악, 동영상, 인터넷 사이트 등 자녀들 나이 그룹대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앱을 설치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AULT'라는 앱을 설치하면 문자, 사진, 동영상 등등을 모두 숨길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도 비슷한 앱들이 많은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앱을 설치하면 그 앱 자체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 스마트폰을 부모님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거나 같은 계정을 사용해서 무슨 앱을 설치했는지 바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어떻게 매번 아이들이 다운해서 설치하는 앱을 바쁜 부모들이 알아야 해" 라고 질문을 던지시면 저는 그분들에게 그 무엇이 자녀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바쁘신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이 글에 다 나누기는 여의치 않으나 저의 초점은 부모님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와 덩치는 부모님보다 더 크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호기심도 많고 순수하고 마음이 여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유해한 인터넷 사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행동에 옮겨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글 김홍배



능력에 관한 오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좋고 유리하도록 해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슈퍼맨이 가진 것 같은 탁월한 능력, 어떤 환경도 뒤집어엮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인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읽기만 해도 얼굴이 퍼지고 식당에 가면 이 구절을 액자로 걸어 놓은 곳이 많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제대로 보려면 그 앞에 있는 구절도 함께 봐야 한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 4:11~12) 이 같은 전제 하에서 그다음 구절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요셉처럼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더라도 절대로 내 안의 평강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고백의 능력이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자주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적용하여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교회 개척만 하면 몇만 명씩 물려드는 능력으로 호도하고 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책망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두 귀한 교회는 서머나교회와 더불어 빌라델비아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헬라 혼합 종교가 득세하였으며 여러 신전이 있어 '작은 아테네'로 불리기도 했다.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동족 유대인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했고(계3:9) 게다가 활화산 지대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 환경적인 고통도 겪어야 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계13:8)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계 3:10)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정말 멋진 말이다.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로 단숨에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추구할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삶,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삶,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삶을 사는 능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을 견뎌라 (이찬수 목사 저) 중에서



로렘나무



1.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로렘나무

로렘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한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명장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에서 로렘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열왕기상 19:4)



엘리아는 왜 하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을까? 광야에 로뎀나무 밖에 없어서일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라는 로뎀나무는 성경에 종종 등장한다. 로뎀나무 아래서 햇빛을 피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햇빛은 저주를, 그들은 은혜를 상징한다. 로뎀나무는 빗자루 같이 뻗어 있어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로뎀나무 그늘에서나마 쉬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은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다.

떨기나무 아래서 울부짖는 하갈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다. 그러나 후에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난 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된다. 이때 하갈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을 지경에 이른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득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득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한 바탕짚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창21:14-16)

여기서 떨기나무로 번역된 나무는 로뎀나무를 말한다. 광야에서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반드시 배경으로 등장하는 나무가 로뎀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라는 비참한 상황에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셨다 (창21:17-19).

대싸리 뿌리로 연명한 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축복을 누렸던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욥은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며 슬픈 노래를 부른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잔 나물도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식물을 삼으리라” (욥30:4)

대싸리 뿌리는 생김 모양이 빗자루 같은 로뎀나무의 별칭이다. 대싸리 뿌리 역시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욥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는 구절이다.

2. 로뎀나무 숯불

성경에는 ‘혀’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온다.

“네 궤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시 120:3-4)

궤사한 혀에 “로뎀나무 숯불”과 “장사의 날카로운 살”을 더하는 비유도 유대문화와 풍습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광야 날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극심한 일교차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낮에는 태양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렵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로 고생하는 곳이 광야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텐트를 치고 양과 염소를 치며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베두인들 (BEDOUIN)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광야의 밤을 견뎌내는 것일까? 수천 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 온 베두인들이 광야의 추운 밤을 견디는 노하우는 바로 로뎀나무 숯불에 있다. 로뎀나무 숯불 위에 5-10센티 정도의 흙을 얹으면 맥반석 찌질 침대처럼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다. 로뎀나무 숯불의 특징은 오래 타는 것이다. 실제로 로뎀나무 숯불은 3일 정도 탄다고 한다. 그러므로 로뎀나무 숯불이 오래 타듯이, 궤사한 혀에서 나온 말은 그 효과도 오래동안 나타난다는 뜻이다. 궤사한 자의 혀에서 한번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로뎀나무 숯불처럼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씀이다.

정리 편집부

출처: 열린다 성경_식물 이야기 중

아름다운 구주 (Beautiful Savior)

아름다운 구주여
나의 영광의 주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하늘
가만히 불러보는 이름
기쁨, 감사, 영광, 찬양, 은혜...
사랑의 말이 되어 내게로 쏟아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처음부터 영원까지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만나라

아름다운 구주여
생명이 되신 주

별빛으로 은혜로이 다가와
병든 자, 넘어진 자, 지친 자의 등 토닥이는
정결한 사랑, 주의 자비가 빛나나이다

별처럼 빛나거라
너의 인생 시종을 주관하리라
어제의 고단과 삶의 시련
하나둘 하늘로 올라가 반짝이는 별이 되리라

모든 이름 위의 이름 예수
사랑의 나의 주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소서
눈 감은 영혼 달린 문 열리니
내가 들겠나이다
빛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목소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윤혜석



크리스천 명언

.....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일에는
세 단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엔 어려우며,
마지막에는 이루어진다.”

- 허드슨 테일러 -

*“I have found that there are three stages
in every great work of God;
first it is impossible,
then it is difficult,
then it is done.”*

- James Hudson Taylor -





Talking about Jesus

And Jesus came and said to them,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MATTHEW 28:19-20)

Our Lord’s command to His disciples in Matthew 28:19-20 has historically been referred to as “the Great Commission” - and with good reason! There truly is no greater mission for the members of the Church than to reach out to the people of this world and to invite them to walk with us in repentance as disciples of Jesus Christ. No goal, purpose, or calling in life is greater than the goal, purpose, and calling of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 중,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삶의 목표나 이유, 부르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더 큼니다.

But even great commissions can have small beginnings.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is a great mission that begins with small steps, small actions, small choices - small conversations. The following conversation is just an example of the kind of small conversations we can have as Christians with the people of this world. Conversations like this can become for non-believers the beginning of a lifelong journey of discipleship in Christ.

하지만, 큰 사명도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은 작은 한 걸음, 작은 행동, 작은 선택, 그리고 작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작은 대화의 예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Conversation (A: Non-Believing Co-Worker, B: Christian)**

***대화 (A: 믿지 않는 직장 동료, B: 크리스천)**

A: Oh my goodness... (Obviously angry and frustrated)

A: 아, 정말... (화난 표정이 역력함)

B: Good morning! (Noticing Co-Worker's anger and frustration) or... Maybe not?

B: 안녕하세요? (A의 화난 표정을 보고) ... 안녕 못하신가봐요?

A: Ha, Yeah, I wouldn't call it a very good morning at all.

A: 네, 결코 안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B: I'm sorry to hear that. Did something happen today? Or over the weekend?

B: 참 안됐군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면 지난 주말에?

A: Well, yeah, just some... family problems. You know how it is.

A: 네... 뭐, 집안일이예요.

B: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it? It might help to share what's bothering you.

B: 무슨 일이신데요?

A: I... don't think so. At least, not right now - I've got too much work to do.

A: 아... 아니요. 지금은... 일이 산더미라.

B: I understand. Maybe we can talk about it later, if you'd like?

B: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라도 원하시면 얘기 나눠요.

A: Yeah, maybe.

A: 네. 그래도 되고요.

B: In the meantime, would you mind if I prayed for you?

B: 그동안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A: Pray?

A: 기도요?

B: Yeah, I usually take a few minutes during lunch to pray for my co-workers!

B: 네, 점심시간에 동료들을 위해 잠깐씩 기도하거든요!

A: ...and you think that works?

A: 그게 정말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B: Yeah, I do! As a Christian, I believe that God hears my prayers - remember that project last month?

B: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을 믿어요. 지난 달 프로젝트 생각나시죠?

A: Oh yeah, that was miserable!

A: 물론 힘들었죠.

B: It really was! But we got it finished, and I think part of the reason is because I and my church prayed.

B: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잘 마무리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기도 했었거든요.

A: Okay, well, maybe. But sure, if you'd like to pray for me, I wouldn't mind.

A: 그래요? 글썄, 아무튼 기도해 주시는 건 괜찮아요.

B: Thanks! And if you ever want to talk more about what's going on, just let me know.

B: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일에 관해 얘기 나누고 싶으시면 알려 주세요.

A: Thanks! I actually feel a little better already.

A: 감사합니다. 이미 기분이 조금 좋아졌네요.

Someone once said, "Preach the Gospel always; use words when necessary."

Above conversation did not include an explanation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 but in the conversation, the Christian revealed a glimpse of the love of God by showing concern and compassion for this broken world. When the Gospel is shown through sincere action, the Truth of the Gospel becomes much more believable. When people experience the love of God through His people, even in small ways like these, that can be the beginning of a lifelong journey of following Jesus Christ.

누군가 말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되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라." 위 대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진 않지만 대화 속에는 깨진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복음은 진실한 행동을 통해 전해질 때,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Pastor Eugene Kwon (Pneuma) / 권유진 전도사 (대학부 담당)

편집부 번역



글/그림 정용익



우리가 모르는 오이의 건강학

값싼 식재료로만 여겨지던 오이가 다이어트·항암·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기능이 밝혀지면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다양한 오이의 건강학적 효능을 소개한다.

오이의 95%는 물이지만 비타민 C와 칼륨·칼슘·베타카로틴 등 생리활성 물질이 가득하다. 그런데 오이 1개(200g)당 칼로리는 24kcal에 불과해서 예전에는 영양가가 없다며 홀대받던 오이가 저칼로리·고(高)무기질을 요구하는 현대인에게 딱 맞는 식품이 됐다.

오이에 가장 풍부한 영양소는 칼륨이다. 오이 1개당 280mg 정도 들어 있다. 칼륨은 나트륨과 길항작용(편집자 주: (拮抗作用, ANTAGONISM)은 생물체 내의 현상에서 두 개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서로 그 효과를 상쇄하는 것)을 해 염분을 몸 밖으로 보낸다.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은 세계 보건기구(WHO) 권고량의 2배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고혈압 환자가 오이를 즐겨 먹으면 다른 음식으로 먹은 나트륨을 배설시켜 혈압 상승을 다소 막을 수 있다. 또 칼륨은 체내 노폐물과 중금속을 흡착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도 한다. 오이 자체도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혈액을 중화시켜 맑게 한다.

한편 오이의 비타민C 성분에도 주목해야 한다. 오이 1개당 22mg의 비타민C가 들어 있다.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비타민C는 식품으로 먹는 게 체내 흡수율이 더 높다. 오이의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로 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높인다.

최근에는 오이의 항암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오이의 꼭지 부분에는 쿠쿠르비타신 A·B·C·D가 있다. 그중 쿠쿠르비타신 C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쿠쿠르비타신 B는 간염 예방 효과도 있다. 또 혈액을 중성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오이의 카로틴도 항암작용을 하며, 활성 산소를 무독화시키고 암세포 발생을 억제한다.

다이어트와 피부미용에도 오이만큼 좋은 식품은 드물다. 우선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들게 한다. 오이에는 개당 1,000mg의 섬유소가 들어 있다. 오이의 식이섬유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물을 흡수해 부른다. 포만감을 느껴 다른 음식을 덜 먹게 한다. 또한, 임신부 부종에도 좋다. 임신부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다. 그런데 물을 많이 먹으면 혈류량만 늘어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오이는 전해질이 충분해 혈압 상승 없이 수분만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부미용에도 오이를 활용하면 좋다. 오이는 찬 성질이 있어 피부 열을 내리고 부종과 노폐물을 제거해 트러블을 예방한다. 거기다 비타민C와 A, 베타카로틴 등의 성분이 있어 항노화 작용을 한다. 갱년기 여성에게도 좋다. 갱년기 증상으로 뼈·근육 등이 약해지고 혈관에 노폐물이 쉽게 쌓이는데, 오이에는 신체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규소도 풍부하다. 피부에 붙여도 좋다. 비타민C와 카페인산 등 두 항산화 물질이 있어 자외선에 의한 손상이나 주름살을 예방한다. 특히 오이를 곱게 갈아 요거트와 섞어 팩을 하면 각질 제거 효과도 있다. 더운 여름 열화상을 입었을 때도 오이가 좋다. 오이의 차가운 성질과 수분·미네랄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킨다.

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http://news.joins.com/article/)





절반의 답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젊은 아버지들에게 희망을 준다. 두 개의 달란트를 받아 네 개로 만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고 다섯 개를 받아 두 배로 불리면 한 개를 덤으로 받는다. 남는 장사이고 다섯이 열 하나가 되는 220%의 기적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는 충성스러운 종의 지혜를 배워 자녀가 원하는 DREAM SCHOOL에 보내는 착한 청지기가 되리라 다짐한다. 어린 자녀의 천재성을 보면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녀의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는 혼돈의 늪으로 빠져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웠던 자녀가 어느 날 털썩 커버렸다. 이전에 똥똥했던 아이는 학교 성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인터넷에 충실하고, 동갑인 같은 목적의 박 집사네 아이는 모든 것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은 바쁘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산 넘어 산이다. 아내의 얼굴에 냉기가 돌고 가슴이 답답하다.

자녀를 성경적으로 키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희망해왔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았는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꿈은 원대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진

다. 지난날 희망을 주었던 달란트 비유를 다시 읽어 보아도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행동 지침이 보이지 않는다. SAT와 ACT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약기를 선택해야 좋을지에 대해 어떤 방향 제시도 없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이지 않는 ‘절반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에서 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시편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목자(牧者)는 양치기에 대한 고상한 표현이지만 그로 인해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막내에게 맡겨지는 일이 양을 치는 것이었고, 맹수가 나타나면 싸워야 하는 위험스러운 일이며, 외로움에 지치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이 양치기의 현실에서의 삶이다.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살아가는 소외된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미천한 이가 바로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양치기 또는 목동(牧童)이었을 것이다.

나의 자녀는 어떠한가? 친구들이 상(賞)을 받을 때 영혼 없이 박수를 치고, 팀 프로젝트에서 죽어라 고생을 하고도 자신의 점수를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하며,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 하면서도 인터넷을 더 오래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아쉬운 것이 많은,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슬프다.

이러한 대책 없는 상황에서 시인(다윗)은 무엇을 하였는가? 별 볼 일 없는 양치기를 바라보되 양(羊)의 눈을 통해서 보았다. 양의 눈에 보이는 양치기는 존경과 아름다움 그 자체이었다. 풀이 있는 곳을 다 알고 있고, 목이 마르면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나쁜 짐승이 오면 임전무퇴다. 사워하지 못해 엉킨 머리칼에서 멧과 유행이 보이고, 외로움에 지친 표정에서 송중기의 모습이 보였을지도 모른다. 양치기는 세상의 누가 뭐래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광야의 보잘것 없는 양치기가 한 줄의 시가 되어 긴 세월 동안 많은 영혼

을 치유해오고 있다. 이러한 반전은 시인이 세상의 상식적인 눈이 아닌 '양의 눈'을 통해 양치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다.

시편은 말하고 있다. 아버지는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가 말해주지 않는 '절반의 답'이라고. 다윗이 양의 눈을 통해 양치기를 보았듯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로부터 숨겨진 가치를 꿰뚫어 보는 '시인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가 포기하면 대학 입학사정관도 함께 포기할 것이다.

시인은 소재를 탓하지 않는다. 다윗이 미천한 양치기에서 출발했듯이 아버지는 아쉬운 것이 많은 자녀에서 출발해서 한 편의 시를 써야 한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베끼는 시는 더 이상 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녀의 부족함과 약함을 시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녀는 천상

의 언어가 되어 한 편의 시가 된다. '220%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고, 시가 된 자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곁을 떠나갈 것이다. 아버지가 믿는 자녀는 풍파에 좌절하지 않는다.

시인은 읽고 생각한다. 성경에는 많은 시가 있다. 시편을 읽고, 잠언과 전도서도 읽는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예수님이 바로 시인이셨다. 그 시인의 제자들이 쓴 책도 읽는다. 가슴이 차갑다면 정재찬 교수의 '시를 읽은 그대에게'라는 책을 읽으면서 워밍업을 해도 좋고, 꽃피는 삼월에 아버지들이 함께 모여 삶의 시행착오를 나누면서 생각하는 법을 공부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최전방에 있는 전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막내를 위한 한 편의 시를 쓰고 있다. 시인의 눈으로 천상의 시어를 찾으려...

글 김영곤



여행길에 만난 예수님 _생명의 빛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성도들과 나누며 서로를 북돋우어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을 지나다가 또는 여행길에서 생각지도 않게 주님과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 박물관이나 갤러리들을 돌아보며 종종 성화를 감상하게 됩니다. 예전의 그림들은 대부분 교회나 왕실 또는 개인들의 의뢰를 통해서 성서의 내용이 작품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화가들이 성서 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주님을 만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꼼꼼히 성화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시대를 넘어선 화가들과의 나눔이 시작됩니다. 지난 6월에 한국 방문길에도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푸르름이 짙어 가는 여름의 길목에서 가평에 있는 한 아름다운 예배당을 찾아 숲 속으로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정겨운 시골 풍경을 지나 도착한 곳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마련한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빛 예수마을'입니다.

그 예수마을은 예배당과 타운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생명의 빛 예배당'은 일반 성도님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며 침묵과 묵상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혼의 내면을 돌아보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또한 부분인 '생명의 빛 휴타운'은 은퇴 선교사님들과 65세 이상의 은퇴 어르신 100가정을 섬기기 위해 마을을 형성하는 중이었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당,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교에 힘쓰는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동안 선교의 중요함을 깊이 깨닫고 있었는데, 이곳은 선교를 뛰어넘어 선교에 일평생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니... 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홍승으로 둘러싸인 예배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건물을 둘러보던 중 곳곳에 걸려 있는 한 여류작가의 성화들과 만났습니다. 그 마을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 감동을 받아서인지 그 여러 점의 작품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주님은 저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겻세마네'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제목의 작품들은 아직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 마태복음 26:39

성경 구절과 함께 걸려있는 '겻세마네'라는 제목의 작품은 음침하고 쉽지 않은 길을 지나... 고개 숙이시고... 꼭 쥐 손으로... 발을 뒤로하여 힘이 들어간 듯... 간절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내 몸에도 힘이 주어지며 예수님의 고통과 우리를 향한 깊은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 됨을 느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이 느끼셨을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위의 그림은 '베데사다 연못'이라는 작품입니다. 연못 주변에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서로 다투며 아버규환을 방불케 하는 장면과 동시에 주님의 손길로 나음을 받는 자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구석구석 병든 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보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도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되는지가 보였습니다. 육신의 병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병들어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1~9

30년 동안 성화를 그려 왔다는 한 여류 작가의 믿음의 표현이 저로 하여금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며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묵상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작업을 했을 그 작가의 마음도 오롯이 와 닿았습니다.

여행길에 생각지도 못했던 한 화가의 그림을 통한 나눔은 긴 여운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시간에 함께 하심이 더 기대되고 설렐입니다.

글 홍정희





(가로퍼즐)

1.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다며, 요시아 왕 재위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갖 멸시와 핍박을 눈물로 견디며 소명의 길을 깨끗하게 걸어간 선지자는?
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OO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4.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친 후,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돌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는 뜻을 가진 말은?
5. 2016년 표어: 우리가 OOO를 알자 힘써 OOO를 알자.
7.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한 소그룹 형태이자 그 자체로서 일종의 개척 교회인 평신도 사역의 현장을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8.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자는?
9. 이스라엘 무리가 호렙 산을 떠나 세일 산을 지나 열하루 만에 도착한 곳이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파견한 곳은?
11. 로마의 총독으로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은? (마 27)
13.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선지자는? (삼하 7)
15. '모임의 장막',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는 거룩한 장막을 일컫는 말은? (민 1:1)
17.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하고자 할때 임했던 10가지 재앙중 8번째 재앙은?
18. 2016년 임마누엘 교회 두번째 계간지의 이름은?
20. 우리 교회의 선교비전: 자녀들과 성도들을 양육하여 매년 1가정을 선교지에 파송하고 후원하여 땅끝까지 OOO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세로퍼즐)

1. OO와 OOOO, 양 날개로 비상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2.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한 서신의 저자는?
4.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마른 뼈 같이 죽은 백성에게 다시 생명을 불러넣는 사역을 담당할 선지자는?
6. 여호와께서 OOO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시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8.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된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인 갈렙의 아버지 이름은? (민 13:6)
10.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12. 이스라엘 중간을 흐르는 강으로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있는 강은?
14. 다음 교회 기관 중 제직회 구성에 속하지 않는 기관은? -(신앙위원회)회 -(지역봉사)위원회 -(관리위원회)회 -(목양위원회)회 -(공동의회)
16. OO는 우리에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19.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말은? (마 21:9)



1			2		4				
3							5	6	
		7			8				
									12
	9	10						13	
14									
		11				18		19	
					16				
15			17				20		

답안의 마감은 9월 30일입니다. 작성하신 답안은 친교실 입구 왼편에 준비된 편집부 함에 넣어 주세요.
추첨으로 채택되신 10분께는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부 -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이건 마치... 내가 이스라엘인 듯...

“**오**? 나 오늘 HR이랑 미팅한 줄 어떻게 알았어?” 남편에게 직장으로부터의 안 좋은 소식을 안고 전화를 했을 때 잘못 알아들은 그의 대답이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난 그날 학교 HR 부서에서 내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교장이 결정했다는 말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다. 그런데 뜻밖으로 그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이었다. 내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남편의 해직 소식을 접하면서 난 즉시 이 일이 하나님께서하시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무슨 뜻으로 우리의 직장을 동시에 가져 가셨을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 못하고 있나? 그리고 즉시 우리가 교회 성경일독 모임을 통해 읽고 있었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겹쳐졌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 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대상 21:8)

남편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확실히 교만함에 찢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에서 선생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사랑과 감사함으로 섬기기보다는 이전 학교와 계속 비교하면서 불평불만을 입에 달며 일하고 있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넛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대하 33:12-13)

남편은 즉시 새벽기도에 나가기 시작했고 아직 학기가 남아있던 나는 그저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 ‘혹시 선교지나 타주로 떠나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 안 그러면 왜 한꺼번에 우리 둘의 직장을 동시

에 자르셨겠어?’ 우리 부부는 크고 자그마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기 시작했다. 우선 이전에 서원했던 단기선교가 마음에 걸려서 온 가족이 자원을 했다. 남편은 인도네시아와 나바호로, 나와 애들은 나바호 단기선교로. ‘하나님, 혹시 이걸 원하시는 것이었나요?’ 하지만 새로운 학교를 알아보면서 나의 앞은 신앙은 다시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선교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 주셨다. 하루는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래저래 소식을 듣고 나눈 후 집에 와서 남편에게 흥분되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같은 학군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나누는데 남편이 지긋이 중얼거렸다. “아람 왕에게 묻고, 애굽에게 가서 묻고, 앗수르에게 구하고...” 참으로 신기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과 나의 삶이 맞물려 돌아가



고 있었다. 나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이었고, 난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히 구하기보다는 이방 왕들과 방백들에게 더 기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읊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읊의 친구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물론 읊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로운 사람인지라 그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억울하고 원통했겠지만 정말로 교만하고 악했던 나에게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칼날같이 내 가슴



을 후벼 파왔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욘 22:29)

겸손, 겸비함, 교만... 등의 단어들에 계속 매일 내 귀에 울렸고 한 해를 돌아보며 교만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섬기지 않았던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라졌다. 그리고 그 아이와 부모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못한 선생 때문에 일년을 낭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좋은 선생과의 만남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종학까지 잘 마칠 수 있었다.

조만간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은 다시 좋은 직장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이전 직장보다 훨씬 휴가가 많아서 자원한 단기선교 여행과 교회 사역을 하기에는 최적합이었다. 몇 주

동안 나와 같은 백수 처지에 있던 동기를 잃고 나니 무척 기뻐했지만, 한편으론 부러웠다. ‘하나님, 저이의 기도는 금방도 들어주시네요.’ 그러면서 또 몰려오는 불안함... 나는 언제나 반석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는지. 그런 나를 바라보고 피식 웃으시며 하나님은 요즈음 시편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해 주신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

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시77:6-11)

교만과 허술한 믿음으로 자주 넘어지고 뒤뚱이며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날 위로하시고 더욱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전보다 더 예배가 소중하고 말씀이 달게 다가온다. 그리고 가끔 아니 자주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기습하는 불안함을 매일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재충전하게 해 주심은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이시고 내 아버지이시라는 증거이다.

글 윤진영

한 걸음 한 걸음

비전 청년부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는 박명철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지체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코너를 위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저의 간증은 한국에서의 모태신앙으로서 살아온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5대째 크리스천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호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5대 크리스천 가정 타이틀에 맞게 어머니의 기도와 가정 예배,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고 자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것 중의 하나는 새벽기도를 가시는 어머니를 누나와 함께 따라가서 비몽사몽으로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도를 오래 하시는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의 무릎 베게를 베고 모자란 잠을 교회에서 자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눈물로 저의 아침을 맞이하는 일은 방학 때마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매일매일을 어머니의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고, 어머니가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어머니와 함께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건 미국에 오고 난 이후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미국으로 초등학교 때 이민을 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 바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하나 열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초,

중, 고를 감사하게도 잘 마쳤습니다. 미국 건너오면서부터 드럼, 기타, 플루트, 색소폰 등 여러 악기를 집, 학교, 교회에서 마음껏 배우고 익히다 보니 중학교 때부터는 찬양팀에서 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쓰임 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초등부 교사로, 수요 찬양팀 드러머로, 그리고 2주마다 토요일 새벽에 무속자를 섬기면서 모태신앙이라는 멋진 타이틀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senior year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부활의 증인' 코너에서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열심히 교회에서 섬겨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어머니의 하나님으로밖에 몰라, 가끔은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놓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빼먹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알려 주신 하나님은 저도 같이 옆에서 경험하였기에 큰 이탈은 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큰 이탈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고등부의 막바지인 senior year 때에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머니가 알고 계시고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알고만 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환점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2013년 겨울 수련회 준비를 위해 Brian Hwang 전도사님의 인도로 12학년 교회 친구들과 토요일 밤에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다른 예배와는 다르

도사님이 또 한 번 “앞에 나온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저희가 망설임 없이 대답하자 전도사님은 다시 한 번 더 무거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다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로 섬길 때 가는 길이 험해도 목숨까지도 그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질문의 무게는 생각조차 못 하고,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주님!’ 하고 외쳤습니다.

이때 저에게 임한 큰 기쁨은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 깊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너무도 큰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분명 강대상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주 강한 손이 저를 푸쉬하는 바람에 제가 제일 뒤쪽 문까지 뒷걸음질 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날 경험하기

“너희가 믿는다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로 섬길 때 가는 길이 험해도 목숨까지도 그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게 이 예배에 모인 친구들과 리더분들의 뜨거운 기도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뜨거운 기도를 늘 보고 자라왔기에 저도 어김없이 아버지를 목청껏 외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Brian Hwang 전도사님이 강대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저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다가 전

도 했습니다. 제가 큰소리로 외쳤던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은 정말 제 삶의 고백이 되어 아직도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제가 숨 깊이 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됨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 인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정든 임마누엘을 떠나 샌디에고로 가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박명철

By God's Grace Alone (오직 하나님 은혜로)

Each year, students from the Youth Group are given an opportunity to serve in the Tenderloin district of San Francisco, regarded by most as 'the worst part of the city'. I am very grateful that I have been able to go on missions these past 4 years, and even more so that God has always worked powerfully during the short week we are there.

This year, despite being particularly powerful, did not start well. Usually, the missions team receives 10 weekly training sessions to pray, learn, work out logistics, and ultimately, prepare hearts to spread the love of God. This year, however, students only received 6 weeks of training. Additionally, most of the leaders (including the new pastor) had not attended this trip before. These differences, along with many other personal issues, made preparing for the trip exceedingly difficult especially when it came to centering my heart on God, and I felt far from ready when we began to serve.

The first few days of the mission trip were discouraging. There was so much conflict in my heart, which I was not prepared to experience. The devil kept telling me lies like "you are useless; you are only a burden to the rest of your team" and "God is not going to do anything on this mission trip for you." While battling with lies like these, I constantly questioned if I was acting to better my reputation, rather than to glorify God. Wrestling these lies with God's Truth was at the least tiring, and the fact that I sometimes gave into the lies only discouraged me further.

I was disappointed with myself because I couldn't confirm my heart to God's truth that I knew in my mind.

중고등부 학생들은 매년 여름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의 하나인 텐더로인 (TENDERLOIN)에서 지역 주민을 섬깁니다. 지난 4년 동안 매년 단기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짧은 한 주간 동안 늘 크신 능력으로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역시 은혜로운 선교였지만, 시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단기 선교팀은 대개 10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실제 사역에 대해서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훈련 기간이 6주에 그쳤습니다. 또한 새로 오신 목사님을 포함한 대부분 리더들이 이번 선교 여행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저의 개인적 상황이 겹쳐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고, 사역은 시작되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낙담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은 갈등이 일어났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계속 저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는 쓸모 없어. 팀에게 짐만 될 뿐이야. 하나님은 이번 선교에서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거야" 자꾸 거짓말을 듣다 보니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서 씨름하던 저는 점점 지쳐갔고, 거짓말에 흔들리는 제 모습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에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The internal warfare progressed into Wednesday. I was serving at the Rescue Mission (a place where the people of the Tenderloin could receive a free meal and health care, and participate in a worship service), and the preacher was proclaiming God's healing power and His willingness to heal anyone who would receive it. This seemed to touch the hearts of both Tenderloin and team members alike, and the room grew louder with prayer.

But I found myself sitting in the back of the room, not perceiving anything but more internal warfare. My discouragement reached its most, as I concluded that I could not even do the simplest 'Christian thing', which was to receive from God, which, surely, was easier than wrestling with my own sinful heart.

Deciding to skip dinner, I found a quiet place to pray through my discouragement. After about an hour, a brother in Christ found me sitting alone. Through praying, reading, and talking together, I could hear God telling me "You were able to realize your heart being distracted and the need to return to Me- even your desire to want to receive from Me. because I chose to give you that heart. Don't think any of this happened because of your effort. The reason I gave you that heart was because of My grace, and I will continue to give you grace." It was only by this encounter with God that I was able to look to Him throughout the rest of the mission trip and even afterwards.

I thank God because He knows that I am simply human and so complete what I cannot do. So I depend on God, and ask Him for grace daily, because "It does not, therefore, depend on man's desire or effort, but on God's mercy." (Romans 9:16) I thank God for everything that He chose to do during this mission trip, and I am excited to see what He will do through and in my life, which is also a mission trip on earth.

Gene Kim (10th g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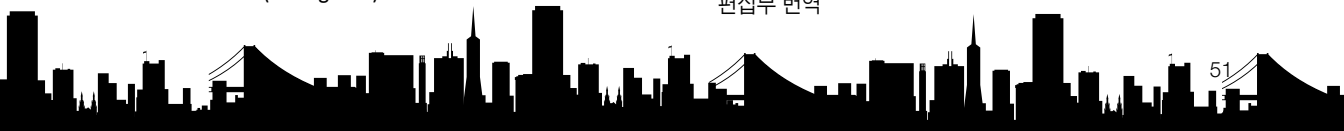
내면의 전쟁은 수요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은 레스큐 미션(RESCUE MISSION, 텐더로인 주민들이 무료 식사 및 건강 관리 등을 제공받고 예배도 드리는 선교관)에서 지역 주민을 섬겼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받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쳐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텐더로인 주민과 선교팀원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 같았고, 그 방의 기도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되는 제 마음속 전쟁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죄된 마음과 싸우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는 일은 훨씬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너무나 낙담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거르기로 하고, 지친 마음을 안고 기도할만한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홀로 있는 저에게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마음이 흐트러진 것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려고 애쓴 것, 그리고 내가 주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한 것조차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너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이 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나는 너에게 은혜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의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시며,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그분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6) 하나님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제가 사는 삶 자체가 선교입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GENE KIM (10학년)
편집부 번역



말씀이 이끄는 삶 (Bible Driven Life)

저는 Palo Alto 지역 성경 통독 모임 리더로 섬기고 있는 김창덕 형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것이 앞으로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장로님 말씀이 공감되어 6개월 간의 성경 읽기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통독하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어린 시절엔 성경 통독 대회가 있어서 그 핑계로 교회 친구들과 논다는 생각에 1주일 동안을 꼬

박 교회에 머물며 난롯가에 앉아서 졸다 말다 읽기도 하였고 대학 시절엔 '성경이 참 달다...' '말씀이 참 재미있다...' '이야,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 밀줄도 짝짝 그어 가면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읽기가 쉽지 않은... 아니,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났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를 시작하며 "교회 전체가 성경을 통독하는 해다" "모두 성경을 같이 읽어 보자" 하는 으샤 으샤 분위기였다가 반강제적으로 등 떠밀려서 성경 통독 모임 리더가 덜컥 돼버려서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랜만에 성경 일독을 올해 해보자' 하며 6개월 동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어떤 거창한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게 되면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다든지, 어떤 간증할 만한 특이한 일이 발생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기 전 항상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읽는 정도였습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지나면서, 계속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렇게 같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



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이적을 보이신다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믿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 죄를 반복적으로 행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다 해도 오늘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유익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는데 바로 저의 성격을 다듬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육하며 짜증 내기 잘하는 저에게, 아내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었나 보죠?” 한 다든지, 운전하다 무심코 내뱉는 말에 옆에 있던 아들 녀석이 “오, 성경 읽는 사람이 그래도 돼요? 우~~” 하기도 하면서 은근히 집안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성경 읽는 사람이 그래도 되나 안되나가 된 셈이죠. 그러고 보면, 매일 성경을 읽으며, 사실 저 역시 그날 성경 읽기 전 하루를 돌아보아 말씀 앞에서, 거리낌 있는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조심스러워지고,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하고 설렁설렁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이 좋은 거다’ 라고 고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절제하며 일상 속의 나의 모습이 조심스러워짐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성경책 맨 가운데를 탁 펴면 나오게 되는 시편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스펠송에서 흔히 듣고 따라 부르던 찬양의 배경들을 시편을 통해 읽으면서, 아니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찬양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웠던 때에 지어진 거야?라고 생각하며 감사 그리고 찬양이 새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 않았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라는 우리 조의 한 분의 말씀처럼 더불어, 같이 읽는 게 재미도 있거니와 은근히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카카오 그룹 방에 올린 각자의 오늘 말씀을 보며 ‘내가 그냥 지나친 말씀이 이분에게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구나’ 하고 다시 찾아보기도 합니다. 모쪼록 올해 마지막 날, 우리 성경 읽기 모임이, 아니 함께 시작한 모든 우리 교우들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다 같이 읽으며 “아멘” 하고 즐거이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글 김창덕



주 너를 지키리

'나의 노래'라는 주제로 글을 부탁받고는 지난 두어 달 동안 계속 나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하고 굽이굽이마다 함께 했던 찬양들을 기억해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성가대 지휘하시는 아با와 교회 반주하신 엄마를 보며 자라 자연스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찬양하는 게 일상이 되었던 거 같아요. 노란 성가대 가운 입고 초록색 찬송가를 들고 유년부 성가대를 섬기러 교회 가는 게 마냥 즐거웠던 기억도 있고요. 지금처럼 전화기로 하루 종일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 혼자 집에 있는 시간엔 보통 찬송가를 꺼내놓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불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일 처음 좋아했던 찬송가가 '내 주여 뜻대로'였던 거 같아요. 초등부 시절 찬양대회 심사위원이었던 아با 옆에 앉아 들었던 어느 고등부 언니가 불렀었는데, 교회서 하는 앙케트 조사 때마다 좋아하는 찬송가를 그리 적기도 했었답니다. 이제 생각하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아주 비장한 가사의 뜻도 모르고 그저 선율이 아름다워서 그랬던 거 같네요.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이곳 산호세로 이민 와서 학생회에서 찬양인도자로 섬기며, 또 장년 예배 반주를 하면서 늘 찬송은 가까이 있었고요. 대학에 가서 3학년 때 전공을 수학에서 음악으로 바꾸고, 처음으로 예배 지휘자로 소명을 받으면서 지난 27년간 찬양은 늘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분들 속에서 기도 받으며 찬양 속에서 살다 보니, 감사가 감사이고 은혜가 은혜인지 뜨겁게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을 인제야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어렸을 적부터 저의 몸속에 스며들었던 찬양들이 살면서 툭툭 튀어나움을 경험했습니다.

첫아이가 KINDERGARTEN에 입학하고 몇 개월 안 되어 자꾸 피곤해하고 목말라 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많아지고 해서 혹시나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소아 당뇨라 하더군요.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감사였습니다. 어찌 할 수 없이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큰 병이 아니라 조절하며 안고 갈 수 있는 병이었기에... 어느 엄마처럼 저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내 잘못이냐며 살면서 처음으로 회개 기도도 울부짖으며 해보고, 아이 데리고 기도 받으러 다니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혼자 울며 그 당시 선물로 받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어릴 적 의미도 모르고 불렀던 찬송가 가사들이 다 살아서 움직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가는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지금까지도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서 부르는 찬송이며 큰 위로가 되는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 주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주 너를 지키리 아무때나 어디서나 /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이의 질병조차, 내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기만 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지난 12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을 준비하며 찬양을 묵상하며 지냈는데, 지난 주말 새벽에 아들이 바로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자다 말고 놀라 나간 집 앞엔 여러 대의 소방차와 경찰차가 와 있고, 차들은 엉망이 되고... 글자 그대로 다리가 후들거리며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멀리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며 안도감이 오자마자... 곧장 드는 생각이 참으로 믿음 없게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서요? 이 새벽에도 밤거리 운전 중에도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하는 원망이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저의 얇은 믿음이죠? 놀라고 속상하니 감사가 먼저 나오질 않았나 봅니다. 다음

날인 주일, 찬양이 나올 거 같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시편 121편을 선포하듯 외치며 지휘를 하며 함께 부르니,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놀라운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으로 또 응답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 121:8) 하신 말씀이 크게 들리며, 큰 사고 속에서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가 올라왔답니다.

저의 결혼식 리셉션 때 저희 부모님께서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를 불러 주셨던데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나 분가시키시며 이제 주님이 지켜줄 거라는 약속을 입에 물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막막한 순간에 이 찬송가가 푹 튀어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가 저의 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불러 줘야 할 거 같아요. 지켜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라고요.

이제 이 아들이 얼마 안 있으면 PANAMA로 선교를 간답니다. 주사기들과 인술린 등을 챙겨서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말리고 싶었는데, 가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도 성령님이 줄 믿기에 제 믿음보다는 큰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를 얼마나 또 많이 부르며 붙잡고 당분간 하나님을 바라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감사합니다.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여전히 아들은 기적의 치유를 못 받았고, 시시때때로 사고도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도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천지 지으시고 우리 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믿기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함으로 오늘을 살아 내는 거 같습니다. 이글을 준비하느라 지난주 사고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이제 또 조금은 담대하게 선교도 보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깐요.

글 강소연 (2부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가난과 고난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큰 축복이다

나는 1남 2녀 중 막내딸이다. 언니, 오빠, 그리고 나, 모두 연년생이다. 친구같이 자라서 그런지 유난히 많이 싸우며 커왔던 것 같다. 특히 언니와는 완전 철천지원수처럼 으르렁댔었다. 우리 오빠 아빠에게서 상처와 분노에 못이겨 가족 곁을 멀리 떠나 생활한지 오래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가끔 볼 때마다 좀 어색하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 집은 매우 가난했었다. 어찌어찌해서 하나님께서 미국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나마 가난을 조금이나마 모면할 수 있었다. 우리 아빠는 아주 똑똑하시고 모든 분야에 박식하지만 매우 자만하셨고 술 담배를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누군가 내게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술, 담배, 무기력, 폭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고 불쌍한 우리 엄마,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우리 삼남매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우리 셋 모두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아빠께 사랑이나, 관심, 칭찬 등 받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그 작은 체구의 우리 엄마란 분이 다~ 짊어지고 채워 주셨다. 주님께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마를 통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다.

내가 대학교 졸업 후 아빠에게 선택되어 어쩔 수 없이 세탁소 운영을 도와 드리게 됐다. 그때 내 나이 21살, 셋 중에 그나마 제일 부지런하고 깡다구가 있던 내가 뽑힌 것이다. 세월은 흘러가고 여러 우여곡절을 넘나들며 7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아빠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가게에 나오지 않으시고 나중엔 아프셔서 연약한 여자 둘, 엄마랑 나랑 이끌어 가다 지쳐 버렸다. 어느 날 새로운 건물 주인이 혹시 가게를 비워주면 원하는 가격에 맞춰 주겠다고 권유를 했다. 그곳에 큰 호텔을 짓기 위해 가게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아빠도 그렇고, 이미 많이 지쳐버린 엄마와 나는 망설이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가게를 정리해 비워줬다. 돈을 받기로 한 마지막 날, 그들이 뜬금없이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글의 편지와 두꺼운 서류만을 남긴 채 등을 돌렸다. 땅이 오염이 돼서 오히려 우리에게 공사 자금을 물든 지 아니면 조용히 빈손으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이미 계



획하고 쫓아낸 격이었다. 엄청난 부자에 힘 있는 자들이라 다~ 짜고 달려드는데 이길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 식구들은 하루 만에 빈털터리가 됐다. 집도.... 가게도....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여유조차 내겐 사치였다. 엄청난 사건의 후유증으로 아빠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철었던 우리 언니는 하루아침에 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 난 이 위기를 하루빨리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일했다. 거리상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는 언니께 신세를 지며 지냈다. 그때 내 나이 28살, 무섭고 앞이 캄캄했다. 그리고 외로웠다. 그때 처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기도라도 안 하면 무섭고 두려워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함께 하셨다. 좋은 분들을 통해 직장도 얻고, 힘들지만 땀 흘려 번 돈으로 우리 식구들을 살릴 수 있다는 기쁨에 치진 몸도 녹아 내리는 듯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언니에게 들은 얘기가 떠오른다. 우리 언니도 당시 처음 겪는 일이라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단다. 그래서 마지막엔 죽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 달라고 부르짖었던단다. 모태 신앙으로 자라온 우리 삼남매였으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이는 나뿐이었음을 그때 비로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 참! 나 또한 주님의 무한한 축복으로 지금의 사랑하는 남편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 그리고 포기했던 야기도 다~ 내려놓고 나니 8년 만에 이쁜 딸아이를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계획안에서 한 명씩 우리 가족들을 만나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치료하시어 이 모든 고난이 큰 축복을 받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토록 힘든 상황이 없었다면 어찌 이처럼 기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겠는가 싶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우리 아빠를 만나 주신 주님이시다. 그토록 완강히 주님을 부인하며 술과 담배로, 얘기 나눌 친구 한 명 없이 외로이 지내시던 고집쟁이 아빠가 결국은 담도암 말기, 4기란 판정을 받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약해지고 말라가던 우리 아빠.... 마지막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누구보다도 외

롭고 깊은 상처를 홀로 감당하며 쓸쓸히 살아온 아빠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다. 나중엔 간암, 위암, 여기저기 몸통에 시커먼 암 덩어리들로 전이됐다. 그러나 주님의 축복으로 거의 통증을 못 느끼실 정도로 괜찮아 보이셨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시며 마치 천사와 같은 평온한 모습으로 잠드셨다. 이 얼마나 무한한 축복인가? 62년의 생애 동안 주님을 완강히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외로이 살아온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인지 아빠가 떠나신 지 벌써 4년이나 지났지만 난 여전히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믿음 안에 기도함으로 늘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처럼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 가족을 먹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만나 주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이 가난과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 간의 치유도, 아빠의 영혼 구원도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 가운데 은혜로 보답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글 조혜명



언니를 만나 주셨다. 할렐루야!!!

180도 뒤바뀐 우리 언니의 삶을 통해 그동안 그토록 원수지간처럼 살던 언니와 나 사이에 용서와 사랑이 찾아 왔다. 더불어 하나님과 식구들을 등지고 살던 울 친오빠와 울케언니 까지도 우리 언니가 전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였고, 지금은 셋 중에 오빠가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빠도 많이 호전되셔서 퇴원하셨다.

찬송가 600여 곡을 알토 화음으로 부르시는, 금유경 권사님

소녀 같은 감성을 지니신 할머니 금유경 권사님, 찬송가 600여 곡을 알토 화음으로 부르신다는 소문을 듣고 햇살이 따스한 5월 중순, 권사님 댁을 찾아서 직접 만나 뵈었다.

권사님은 할아버지 세대부터 예수님을 믿는 집안의 음악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생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신 아버님, 피아니스트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감성과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나셨다.

7살 때부터 어머님께 피아노를 배우셨는데, 어머님께서 “너는 알토를 부르기에 적합한 귀한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하시는 말씀을 좇아 교회 찬양대에서도, 합창단에서도 항상 알토 파트에서 노래를 하셨다.

대구에서 사실 때는 대구 제일 교회를 섬기셨고, 나운영 선생님이 만드신 합창단에서도 알토 파트를 하셨고, 혼성 4중창단에 조인해서 결혼식 축하도 많이 부르셨다.

한참 전성기(?)를 누릴 때 권사님은 정확한 음으로 모든 알토 파트를 외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것에 대해 본인이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셨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달으셨다.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루어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게도 음악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고, 음악적인 감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신 것, 알토를 하기에 적합한 목소리를 주신 것, 일생을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권사님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 더욱 더 감사함으로 살고 계신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30년간 찬양대를 섬기셔서 받으신 표창 메달을 보여 주시면서 “영락교회 찬양대는 찬양대원이 1,500명입니다. 그 찬양대의 수준이 세계적이지요.” 한 세대 가까이 몸담았던 영락교회 찬양대에 대한 권사님의 애정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미국에 오기 전날까지 찬양대에서 찬송을 부르고 오셨다고 하신다.

“지금 저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겸손한 마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살겠다고 말씀하신다.

“기타를 연주하면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즈음은 기타도 배우신다.

작년 말까지 우리 교회 2부 찬양대에서 알토를 하신 권사님은 슬하에 네 명의 딸을 두셨는데 모두 음악적인 재능을 가졌고, 하나같이 권사님께 잘한다고 뿌듯해 하신다. 2부 찬양대 알토 파트의 둘째 현주씨, 또 막내와 함께 모녀가 2부 찬양대를 섬기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었다. 실리콘밸리 선교합창단 지휘를 하는 박선주 씨는 셋째 딸이다.

80세의 연세가 믿기지 않게 피부도 곱고 아름다운 멋쟁이 권사님. 직접 피아노를 치시면서 좋아하신다는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딸 현주씨와 함께 이중창으로 찬송하시는 권사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우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쁘실까…. 권사님처럼 나도 항상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 가득 안고 발걸음을 옮겼다.

취재, 사진 윤영숙



김치

김치, 김치
맛 좋게 만들자

꿀꺽, 꿀꺽
침넘어 간다

매콤, 매콤
매운 김치

나는 김치를
제일 좋아해

권수아 (초급 2반)



바닷가

파도랑 놀다가
조개 껍데기 줍고
모래성 만들어요

파도가 와서
내 모래성에 모래를
가져 갑니다

우수진 (초급 2반)



주 안에서
하나님이 행복합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테니스팀입니다. 저희 테니스팀은 친교 위원회 내 체육 행사 부에 소속된 팀으로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며 팀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가족들의 교회 정착에 도움이 되며, 스포츠를 통한 VIP 인도를 목표로 매 주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는, 매주 한 번 이상 흥뻐 땀을 흘리며 운동하길 원하시고, 긴장감 도는 승부를 즐기면서, 테니스를 좋아하는 저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VIP 분들이 다 함께 모여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명의 팀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에 15~20명 정도가 주일마다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게임은 거의 모두 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석하는 사람 수보다 사용할 수 있는 코트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복식 게임만이 유효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서로 한 팀이 되어 파트너를 하고, 또 파트너를 바꾸어 가며 경기를 함으로써, 서로서로 알아 가고 친교를 할 기회가 더 생기는 이익도 있습니다. 형제님들만 구성되어 있었던 팀에 작년엔 드디어 처음으로 자매님 두 분이 들어 오셔서 혼성 복식 경기도 가능해졌고, 지금은 6명의 자매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SARATOGA에 있는 WEST VALLEY COLLEGE (14000 FRUITVALE AVE, SARATOGA) 내에 있는 TENNIS COURT이며 매 주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함께 운동하고 있습니다.



팀의 공식적인 행사로서는 매년 봄에 개최하고 있는 임마누엘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 23일에 개최되었고, 11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총 13개로 구성된 복식조를 청, 백 두 팀으로 나누어 팀대항을 하였습니다. 13개 복식조의 구성은 형제님, 자매님, 자녀 그리고 VIP분들이었고,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 초청 선수로 손원배 목사님과 조종연 목사님께서도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과, 준비와 진행, 그리고 뒤에서 여러모로 도와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저희 테니스팀은 테니스를 통해 건강과 친교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글 김은경B



파워 제너레이션 (Power Generation)



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 뒷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를 맞이하는 건 다름 아닌 중고등부 찬양팀의 찬양 연습이 아닐까 합니다. 간혹 중고등부실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학생들이 준비하는 찬양 시간은 현세대를 대변하는 하나님을 향한 젊은이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같은 시각 중고등부실 뒤편에 있는 중고등부 패밀리룸에서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SMALL GROUP LEADERS) 고등부 김승균 목사님, 중등부 권혜린 전도사님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 중입니다. 매주 함께 모여 그날의 예배와 소그룹을 위해, 학생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매 주일 기도로 시작되는 중고등부 사역팀은 두 분의 풀타임 목회자와 4명의 인턴, 중등부 부장, 고등부 부장 그리고 30명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수의 교사이지만, 30명 교사의 수가 모자라 4명의 12학년 학생들이 9학년 4반을 맡아서 교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가량 고등부 담당 목회자의 부재로 권혜린 중등부 전도사님이 두 번의 설교와 매주 토요일 모임, 수요 학생리더쉽 훈련, 겨울 수련회 등을 맡아 중고등부 전체를 섬기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4월 김승균 목사님이 고등부를 담당하게 되어 이제 다시 많은 부분 역할을 나누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16개 반, 중등부 18개 반 총 34개 반이 한꺼번에 소그룹모임을 할 수 없으므로 함께 찬양시간을 갖고, 먼저 중등부 학생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고등부 학생들이 소그룹모임을 갖고, 장소를 바꾸어 중등부 학생들이 소그룹모임을

갖는 동안 고등부 학생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여유 있게 갖지 못하여,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중고등부실을 들어오고 나가는 많은 학생을 보면 저희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 감사하게 됩니다.

매주 주일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외에 매일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전체 교사모임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저녁 식사 후, 소그룹을 통해 함께 공유할 만한 특이 사항이나 기도제목들을 나눕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백, 학생들이 선생님이 새로운 직장을 갖도록 기도해 주어 감동했다는 고백 등 모든 교사가 공감하며 은혜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소그룹시간에는 학생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가이드를 하면서, 중등부의 경우는 그날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권혜린 전도사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질문을 토대로 학생들이 설교 내용 (2015-2016 학년: 누가복음, 시편)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의 경우는 소그룹모임이 설교시간 전에 있으므로, 주로 그전 주 설교내용 (2015-2016학년: 창세기)을 위주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학년에 따라, 성별에 따라 소그룹모임에 임하는 학생들의 분위기나 태도가 각각각색이어서 교사들은 해마다 새롭게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2016년 교회 차원에서 온 성도가 참여하는 성경 일독에 중고등부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여 부모님과 동일한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일독을 하도록 소그룹시간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과 행사로는 매주 토요일 저녁 REST 모임과 매년 학생들이 주관하는 'BROTHERS AND SISTERS APPRECIATION NIGHT', 'PARENTS APPRECIATION NIGHT', 'CLASS COMPETITION', 그리고 단기선교 여행 (MISSIONS TRIP), 겨울/여름 수련회 (WINTER/SUMMER RETREAT), 그 외 학생들의 교제를 위해 보울링, 아이스 스케이트링, 레이저 태극 등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안에서 즐거움을 나누고 믿는 친구들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교제와 또 리더십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2월 중순에 있는 'BROTHERS AND SISTERS APPRECIATION NIGHT' 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며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중고등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배울 기회로 삼게 됩니다. 학생들이 주관하는 다른 행사들에는, 5월 말에 있는 'PARENTS APPRECIATION NIGHT' 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키워주시고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신 부모님께 감사함을 작은 음식 대접으로 표현하는 행사가 있고, 여름 단기선교 (MISSIONS TRIP)를 위한 후원 바자회가 있습니다. 후원 바자회를 학생들이 떠들썩 참여하며 후원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선교 여행'을 가기에 앞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는 경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수련회 (RETREAT)입니다. 특히나 겨울에는 수련회에 참석하는 수가 250명에 가까워 베이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을 소화할 수 있는 수련회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만큼 해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많은 학생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고, 또 중등부로 올라와 아직 중고등부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익숙지 않은 6학년 학생들도 신앙적으로 한껏 성숙해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처럼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지만,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주일예배와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 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소그룹 리더나 인턴들이 학생들과 주중이나 토요일 등에 일대일로 만나 음료를 나누며 일상의 대화를 시작으로 학교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공간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지체들의 모임이고 관계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15~2016년 한 해 동안, 중고등부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하고, 일상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지난 겨울 수련회 (주제: KNOW HIS WORTH)를 통해서도 함께 배웠습니다.

중고등부를 소개하는 짧은 글을 통해 중고등부의 사역을 부족한 글로 옮겨 보았습니다. 학생들을 섬기며 개인적으로 저를 이 사역에 몸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저를 가르치셨던 제 중고등부 시절의 선생님들을 떠올려 봅니다. 숫기가 없고 부끄럼이 많았던 제 중학교 1학년 시절, 중등부 학생회장이 될 거라고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 성경공부를 일찍 마치고, 고3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짜장면을 사주셨던, 이제는 장로님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신, 고등부 때 선생님. 지금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해서,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그 빛을 이제 제게 맡겨 주신 학생들에게 조금 갚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은 어찌 보면 가정 사역의 일부입니다. 교사라고 칭하지만, 무엇을 가르치기보다는 신앙의 선배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세로 때로는 형처럼, 언니처럼 멘토링을 하는 사역이 중고등부 사역이 아닐까 합니다.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 많은 성도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교사로 함께 섬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글 김우정



볼로초와 cruciferous vegetables 이야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대표적인 욕망 중 하나이다. 그중 진시황의 볼로초 이야기는 옛날이나 있을 법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볼로장생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현대 인간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건강에 관한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건강에 관심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의 규모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숫자로 기록되고 있다. 다양한 지식들과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들과 생산품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 중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지식과 이를 이용한 제품들이 좀 더 대중과 과학계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중 하나는 세포의 죽음과 노화에 관한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2002년 노벨 생리학상은 SYDNEY BRENNER, H. ROBERT HORVITZ, JOHN E. SULSTON 세 사람에게 수여되는데 그들의 과학적 공로는 유전적 변형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세포의 죽음이 질병이나 노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세포의 죽음을 통해 노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예를 들어, 인간의 피부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의 수가 많으면 피부의 노화가 진행된다. 뇌 속의 특정 영역의 세포들이 죽어 가면 파킨슨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면역세포들의 죽음으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하면 감염이나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유전적 변형이나 환경적 요소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 물질은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그 원인을 활성화 산소(reactive oxygen species)로 규정하고 있다. 활성화 산소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칼로리에 비례해서 생산되는데 칼로리가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소의 부산물이다. 마치 자동차가 움직일 때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산소는

생성되는 유해가스와 같은 존재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활성화

폭탄과 같아서 우리 몸의 세포들과 부딪칠 때마다

포들에 손상을 주어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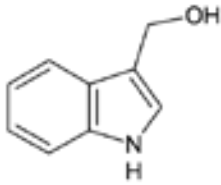
거나 DNA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섭취한 칼로리에 비례하여 생성되는

이 활성화 산소를 없애는 것이 세포의 죽음을 최소화하여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이론이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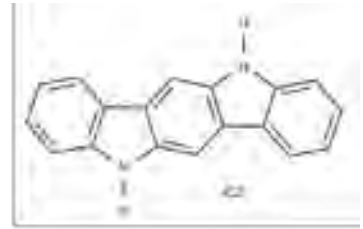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활성화 산소를 차단하는 항산화제들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indole-3-carbinol (I3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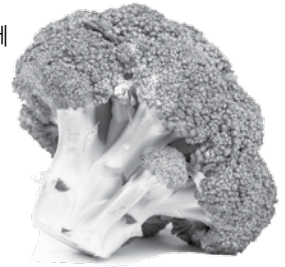
**Acidic conditions
(위)**



indolo[3,2-b]carbazole (ICZ)

CRUCIFEROUS VEGETABLE (십자생 채소)은 탁월하고 다양한 항산화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채소들은 콜리플라워, 양배추, 박초이,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들을 지칭한다. 또 다른 이름은 CRUCIFERAE로 “CROSS-BEARING” 즉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십자가 모양과 같은 4개로 구성된 꽃잎의 모양으로 인해 불린다. CRUCIFEROUS VEGETABLE은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을 바탕으로 비타민 C,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GLUCOSINOLATES, 항산화 작용을 하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파이토케미컬들 중 INDOLE-3-CARBINOL은 인간의 위에서 다시 INDOLO-CARBAZOLE이라는 물질로 변형되는데 이 물질이 탁월한 항산화 물질인 동시에 항암제의 역할을 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INDOLO-CARBAZOLE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인 림프구의 죽음을 억제하고 활성화를 촉진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 INDOLO-CARBAZOLE은 암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암을 선별하여 제거하는 자연살해 세포(NATURAL KILLER CELL)를 활성화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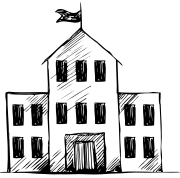
진시황은 수천 명의 선남선녀를 파견하여 불로초를 찾으려 했지만, 불로초는 구경도 못 하고 49세에 죽는다. 물론 불로초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을 찾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CRUCIFEROUS VEGETABLE은 불로초는 아니지만, 노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과학적인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이러한 욕망을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할 만한 채소로 생각된다. 십자가라는 단어와 관련된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이 채소가 우리의 식단에 친근할 수 있는 채소로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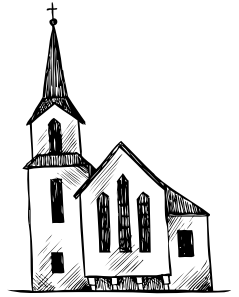
참고 문헌

1.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CRUCIFEROUS_VEGETABLES](http://en.wikipedia.org/wiki/Cruciferous_vegetables)
2. PROC NATL ACAD SCI U S A. 2013 JUL 23;110(30):12391-6
3. NAT IMMUNOL. 2016 JUN; 17(6):687-94.
4. “CRUCIFEROUS VEGETABLES AND CANCER PREVENTION”. FACT SHEET. NATIONAL CANCER INSTITUT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7 JUNE 2012.

글 지현배 (면역학)



고석진 성경 일독방을 찾아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 전 교인 성경 일독의 해를 맞이하여 쿠퍼티노 지역 10개 성경 일독방 중의 하나인 고석진 리더방의 6월 모임을 찾았다. 설레임을 가득 안고 새가족부실에 들어선 순간, 백합처럼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이하는 온유방 식구들의 따뜻한 섬김은 사랑 공동체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은혜 비를 사모하는 온유방 식구들과 약 2시간 동안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다.

온유방 식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6개월간 성경 통독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날마다 읽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번엔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 텐데요. 혼자 읽을 때보다 전 교인이 함께 읽음으로 인해 얻은 유익이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 결단으로 작년 11월쯤 먼저 시작해서 전 교인이 1월에 성경일독을 시작하실쯤에 모세 5경을 읽고 있었는데 혼자하는 속도보다 전체가 따라오는 속도가 빨라서 2월 중순쯤되니 진도를 따라 잡혔습니다. 혼자 읽을 때는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혼자만의 경험과 생각으로 구절을 생각하고 마는데 함께 읽으면서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간 구절들인데 다른 분들은 왜 이 구절을 올리셨을까?”라고 한 번 더 그 말씀의 의미와 구절을 생각하게 되어 좋습니다.” “여태껏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접했지만, 이번처럼 순서를 정해 체계적으로 일독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너무 좋아서 온유방원들로부터 카톡이 들어오기를 날마다 기다립니다. 한번은 아침에 기대하고 일어났는데 한참이 지나도 카톡이 올라오질 않아 실망했었는데 알고 보니 토요일이라 그런 것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웃음) 체계적으로 말씀을 대하니 여태껏

들어왔던 말씀의 의미나 메시지, 설명들이 한 맥락으로 정리되는 것이 정말 좋아요.”

성경 일독 시작 전과 후,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에 대해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믿음 생활과 하나님의 자녀 됨을 개인적 고백이나 구체적인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일독을 하면서 점점 선택된 자가 자녀야 할 자부심을 가지고 함부로 생활에 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읽든 안 읽든 삶에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제는 점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늘어갑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도 외국교회를 다니는 2세 동료들 붙여주셔서 일주일엔 한 번씩 만나 한 주간 읽은 분량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더 잘하라고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엔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했는데 삶을 힘들어하던 남편이 먼저 뜻을 두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남편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마음처럼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성경 일독을 하면서 집안의 기동인 남편이 심적으로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 너무 좋아요. 덕분에 남편과 대화도 늘었고 자주 출장을 다니는 남편이 전에는 작은 경비행기를 탈 때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평안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종종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을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좋습니다. 전에는 끝없는 바다에 돛 없이 떠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해져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전에 성경 일독을 일주일 만에 해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1년간 하니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이 잘 안 풀려도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변화된 모습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성경 읽기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경 읽기에 대한 부담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초신자로 성경의 역사나 인물들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처음 대하다 보니 인물, 족보, 사회 제도, 도량형 등이 서로 헷갈리고 한눈에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성경 연대기, 쉬운 성경 해설 등등을 인터넷으로 찾아 이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광기나 역대기는 아직 어렵네요.” “최첨단 기술(스마트폰 앱)에 아직 익숙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은 실수로 카톡방에서 나가게 되어 리더님에게

스더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없으시지만, 율법 없이 또는 율법을 무시하면서 오랫동안 범죄하며 살아왔던 유대인들, 또 긴 세월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본토로 돌아와서도 잊혀진 율법 책을 읽기 전까지 무지함 가운데 율법에서 금한 일들을 해도 바로 별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인자로 묵묵히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마음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저는 주변의 교인분들 중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의 소식을 듣거나, 신문에 실리는 많은 충격적인 뉴스들을 보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옳지 못하거나, 온전치 못하거나, 원만하지 못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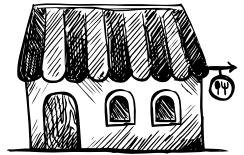


서 걱정하는 안부 메시지가 오기도 하더군요. 연세가 많거나 스마트폰 앱 등에 익숙지 않은 다른 분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무엇이며, 어떤 말씀을 읽다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셨는지요.

“제게는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에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금방 충격에 빠지고 때로는 빠르게 당사자들을 정죄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처럼 오래 참지 못했다는 사실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힘들고 답답한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번에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기준을 제 삶에 펼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사랑의 하나님보다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시험을 계속 받는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미 주신 과제를 아직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인지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순종했던 그 시험을 과연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유대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순종해서 살다가 타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며 순종하다가 또 타락과 죄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때 나의 삶은 지금 어떤 시기(CYCLE)에 속하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벌을 받기 일보 직전의 단계인지 아니면 용서받고 있는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용서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최소한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는 무사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웃음) “하나님은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대목은 아직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제게는 약간 거부감이 들면서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시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니 식언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같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정했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대구에서 미션스쿨에 다니게 되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지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느낍니다. 미국에 온 후에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나를 돌봐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가 가장 와 닿습니다.”

지금껏 읽은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속의 인물(도전,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인물 등)이나 마음에 새겨진 성구는 무엇인지와 그 이유를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나팔관 임신 치료를 위해 수술 후 우울증을 겪었는데 엘리야가 우울증을 겪고 도망가고 겁을 내다가도 이겨내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은 엘리야에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는 다윗과 사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제일 닳고 싶은 인물이고, 사울은 저의 인간 되고 죄스러운 모습을 많이 닳은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자 점쟁이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런 모습이 비교되면서 제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 동네가 동네이다 보니 앞에 주어진 상황에서 BLUE OCEAN을 찾아냈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솔로몬 안에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하기 전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밝은 면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 그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웬지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 일독하는 중에는 갈렙이 새로운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85세의 노장이고 모든 이들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용기를 내었던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같아 갈렙을 선택했습니다.”

날마다 카톡방에 올린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일하기가 싫고 쉬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카톡을 보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카톡을 자꾸 보다 보니 구절을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됩니다. 또한, ‘카톡’, ‘카톡’ 하면서 올라오는 나눔과 구절들이 힘을 주어 무례한 고객들을 대할 때도 인내심으로 넘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의 경우는 말씀 구절들을 대하다 보면 주변에 말씀 구절에 맞는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읽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믿지 않는 친구가 생각나서 '너 이거 몰랐지?' 하면서 전해 주었더니 안 믿는 친구지만, '아멘!'으로 화답하더군요" "저는 일 주일에 한번씩 직장 동료와 한 주간의 삶과 큐티 나누는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일주일동안 카톡방에서 나눴던 내용을 다시 활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성경 일독방 활성화와 아직 일독방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후반기에는 함께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미 반이 넘어 버려서 성경 일독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니 일독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공유하고 같이하는 것으로의 초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가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날의 분량을 요람으로 체크하지 않고 리더분들이 오늘 분량은 이것입니다 하고 아침에 게시해 주시면 손쉽게 진도를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진도에 따라 성경은 읽었지만, 아직 한 번도 말씀을 카톡에 올리지 않았는데 강요하지 않고 바라봐 주시는 리더님이 정말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같이 가자고 종용하는 것보다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일독을 하면서 각자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나누고 인터뷰를 마칠것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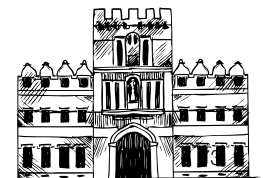
"처음 성경을 접한 지 겨우 6개월이 지났고 아직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 않지만, 시편 28편 7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힘이고 방패라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최창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이 카톡에 뜨기 때문에 성경 구절 및 페이지까지 반복 묵상 되어 외워지고, 이른 아침에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성경 읽기가 우선순위(PRIORITY)가 되었으며 정해진 분량이 5~7장이라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어 성취감과 만족감도 들고 일석이조로 절친한 권사님/장로님

이 비즈니스 슬럼프에 빠져 계시는데, 적절한 한 구절을 보내니 위로받고 계시는 것 같아 은혜가 더욱 충만합니다.(최귀애)" "모태 신앙이면서도 매일 성경을 읽지 않은 죄책감에 힘들었는데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에다 지체 간의 소통까지 기쁨 두 배를 느낍니다.(홍정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한없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약속하신 민수기 14장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저를 기뻐하실 때 인도하실 땅이 기대됩니다.(고석진)"

목장 모임과 일독방 모임의 비교, 밀린 숙제나 나눔에 대한 부담으로 일독방 모임 참석이나 그룹 방에 말씀 올리기를 아직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권면과 해결책 등 전교인 성경 읽기 하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비상하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모으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일독방 리더로부터 성경 일독에 참여한 지 겨우 2주 되신 분, 신앙 생활을 60년 이상 하신 분에서 1년도 채 안 되신 분, 회사 생활하시는 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 산호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 등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방 이름에 걸맞게 온유함과 은혜로 뽄뽄 뽄뽄 모습이 참 부러운 주일 오후였다. 인터뷰를 끝마치며 편집부에서 부탁드린 방명으로 재치있게 써 주신 3행시 하나를 소개하며 남은 반년 동안의 임마누엘 전교인 성경 일독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영적인 건투를 빈다.

- *온 - 온 세상의
- *유 -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 *방 - 방금 또 성경에서 만났어요

취재 한혁, 김정신 / 사진 여환승



인터스텔라 (INTERSTELLAR)

지구에서의 인류는 점점 더 발전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우리의 막연하고 근거 없는 기대에 대한 반기를 든 영화다. 그리고 인류가 지구에서만 대대로 살 것이라는 생각에도 도전 을 준다. 극도로 나빠진 기후, 모래바람, 황폐해진 땅과 식 량난으로 인해 사람들은 병과 기근으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2040년이 영화의 배경이다.

주인공 쿠퍼는 한때 항공 우주사였지만 과학이나 공업은 더 이상 가치 없게 된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딸 머피와 아들 톰, 그리고 장인과 함께 옥수수 농장을 가꾸며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머피의 방에서 책이 자꾸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열린 창을 통해서 모래바람이 쏟아져 들어온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유령의 짓이라고 생각하던 머피는 아버지 쿠퍼와 함께 모래가 모스 부호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 부호를 해석해 따라가자 나사(NASA)의 비밀 우주 기지가 나타난다. 그곳에서 쿠퍼는 브랜드 박사와 아멜리아를 만나고 나사의 비밀 계획을 듣게 된다. 설명인즉슨, 원래는 없던 '웜홀'이 토성 곁에 출현했고, 나사에서는 이 웜홀을 통과해 다른 은하계에 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중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우주 탐사기를 보낸 상태였다.

그들은 죽어가는 지구를 떠나 새로운 별에서 인류를 다시 번성시킬 계획을 구상 중이었다. 문제는, 새로운 행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는데 필요한 '중력 제어 방정식'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한 것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우주에서 해답을

얻었다 해도, 그 정보가 지구에 시기적절하게 전달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2의 지구 개척의 목적을 가지고 쿠퍼와 아멜리아는 시간의 흐름이 다른 은하계로 우주 탐사를 떠나게 된다. 그들은 몇 명의 탐사원들과 함께 우주선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3개의 별을 여행한다. 2개의 별을 방문했으나 그곳은 기대와 다르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되었고, 우주 탐사 중 팀원들을 사고로 모두 잃고, 쿠퍼와 아멜리아, 그리고 로봇 타스만 남은 채로 마지막 별을 향해간다. 그러나 우주선의 연료가 모자라자 쿠퍼는 아멜리아만 본래 궤도로 보내고 자신과 로봇 타스는 블랙홀을 통과해서 마지막 행성에 가기로 한다.

그러나 블랙홀의 압력에 못 이겨 우주선이 폭발 직전 이르자 쿠퍼는 우주복만 입은 채 흑암 같은 우주 한가운데로 몸을 던져 탈출한다. 죽은 줄 알았던 쿠퍼가 정신을 차린 곳은 기묘한 우주 공간이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영사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시간별로 무수히 펼쳐져 있다. 한 장면 앞에 서자, 과거 머피의 방에서 딸과 실랑이를 벌이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우주 한가운데서 홀로 뒹뒹 떠다니는 악몽 같은 경험을 하는 쿠퍼는 과거를 향해 소리친다. 과거에 자신이 우주 탐사를 떠나기로 한 것을 돌이켜 보려고, 시간의 벽을 두드리며 절규해 보지만 과거의 자신은 전혀 듣지 못한다. 그때 홀연히 책꽂이에 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옛날에 딸이 책이 자꾸 저절로 떨어진다며 유령이 있는 것 같았던 말을 떠올렸다. 그 유령은 다름 아닌 지금의 자신이었다. 그는 곧, 자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과거의 시공



간에 물리적 힘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곧 쿠퍼는 적절한 과거의 시점을 찾아 그곳에서 로봇 타스가 발견해 낸 양자역학 데이터를 딸에게 전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딸 머피가 이 데이터를 연구하여 중력을 제어할 방법을 발견해냄에 따라, 인류는 새로운 행성에 정착하여 제2의 번영을 맞이하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 영화를 보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우주에 있는 쿠퍼와 지구에 있는 머피의 커뮤니케이션 모습이었다. 쿠퍼는 과거의 시간이 펼쳐지는 방을 바라보며, 자신이 했던 우주 탐사 결정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나 불가능했다. 미래의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과거의 그는 미리 알았으면 피했을 결정을 그저 똑같이 할 뿐이다. 그 장면을 보고는 선악과를 따 먹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연상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시므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 먹는 모습을 미래의 창에서 이미 보셨을 것 같았다. 우리는 아니나 다를까, 선악과를 따먹는 미련한 결정을 해버렸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운명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경 말씀을 보내셨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을 아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결국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것이다. 우주가 다르면, 시간도 다르게 흐른다.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참으로 다를 수 있겠다. 하나님 나라는 며칠이 흘렀을 뿐인데, 지구는 몇천 년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상상도 해본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말라”** (벧후3:8)는 말씀처럼, 나의 어제와 오늘과 일생이 그분의 오늘 안에 모두 속해 있을 것만 같다.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오늘처럼 바라보고 계신 그분의 선포가 아닐까?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www.kepc.org / Tel. 408.263.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박용갑
기획	김정신
진행	한연선/김정신/한 혁
사진	김홍배/김범진/윤영숙/박종현 안종훈/여환승
교정 및 번역	정현주/정은하
편집디자인	김은경/김유경/한 혁/이지은